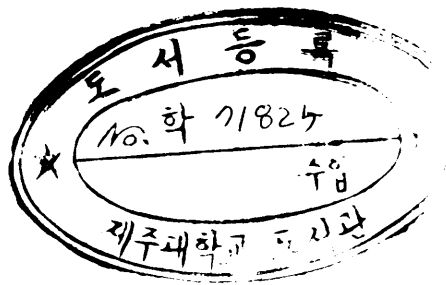


7
112
028/3

碩士學位論文

濟州島 地名語의 形態와 意味素 考察

指導教授 崔圭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梁政植

1999년 8월

濟州島 地名語의 形態와 意味素 考察

指導教授 崔圭一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년 5월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梁政植

梁政植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9년 7월 일

審査委員 長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濟州島 地名語의 形態와 意味素 考察

梁 政 植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崔 圭 一

이 논문의 목적은 제주도 지명어의 어휘 형태(단어 구조)를 분석·고찰하고, 지명어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방언 중에서도 지명어는 그 성격상 보수성이 강하다. 그래서 고어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지금까지 제주도 지명어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지명어의 형식으로서 단어의 형태와 내용으로서의 [의미]를 추구한다.

제주도의 지명어를 단어 형태면에서 고찰하면,

(1) 제주도의 지명어는 의미·형태면으로 볼 때 ‘이중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논자에 따라서 ‘수식+피수식, 지명한정소+지명보편소, 수식요소+근간요소’ 등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의미론적’ 접근이므로 일반적·포괄적 용어보다 [의미소] (lexeme)라는 개별적 용어를 선택하여, [의미소]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단어의 형태는 크게 네 종류로 나누고, 작게는 단일형(1), 파생형(4), 합성형(11), 혼합형(6) 등 2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파생형은 ① aR형, ② Ra형, ③ aRa형, ④ aa형

※ a=affix, R=Root

합성형은 ① R1R2(대등) <(N+N)+(N+N)>
예) 밧고랑논고랑

② R1R2(주종) <N+N>

예) 산우장

<As+N>

예) 너븐내

<Vs+N>

예) 조순다리

③ R1R2-R3(주종) <(N+Vs)+N>

예) 쇠떨어지는구멍

<(N+N)+N>

* 이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예) 절물오름

< (N+As) +N >

예) 흙붉은오름

< (As+N) +N >

예) 곤내골

< (Vs+N) +N >

예) 걸시오름

< { (Vs+N) +N } +N >

예) 돈내콧도

< { (N+Vs) +N } +N >

예) 직사먹는물도

*R=root, N=noun, Vs=verb stem, As=adjective stem

혼합형은 ① aR1R2, ② R1R2a, ③ R1a1R2a2, ④ R1a1R2R3, ⑤ R1R2aR3,
⑥ R1aR2

(3) 단일 형태의 지명어가 적다는 것은 생활 공간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4) 제주도 지명어의 대다수는 합성형과 파생형이다.

제주도 지명어를 의미면에서 고찰하면,

(1) ‘-도’, ‘-개’, ‘-코지’ 등은 ‘점미사’나 독립된 의미를 지닌 ‘자립명사’로 쓰인다.

(2) 지역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의미소]를 다른 형태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좁은 지역이지만 왕래가 적었고, 생활의 형태가 어촌형, 농촌형 등으로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3) [河川]에 관한 의미소가 적고 [田地], [山岳], [林野], [巖盤]에 관한 의미소가 많은 것은 ‘화산 지형’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4) 陸上과 海上을 동일한 형태의 의미소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농·어촌을 같은 생활 공간으로 여기고 사는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어휘면으로 볼 때는,

(1) 同一 地名이 꽤 많다.

(2) 古語的인 어휘가 많다.

(3) 몽골어나 일본어와 유사한 차용 어휘가 많다.

‘제주도 지명어의 형태와 의미소’를 고찰해 보았다. 제주도 지명어에 관해서는 그 동안 개인과 단체, 행정기관 등의 꾸준한 노력으로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다. 이제 그간의 축적된 자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방언의 일부로서의 지명어는 언중(言衆)들의 생활속에 깊이 뿌리박혀 그들의 생활과 함께 생성·변화·소멸의 과정을 거쳐 왔다. 지명어 연구는 언어학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제주도 방언 연구와 국어의 통시적 연구에도 기여함이 있으리라 믿는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2
3. 선행 연구 검토	2
II. 본론	4
1. 제주도 지명어의 형태	4
1.0. 도입	4
1.1. 단일형	5
1.2. 파생형	6
1.3. 합성형	7
1.4. 혼합형	10
2. 제주도 지명어의 의미소(意味素)	10
2.0. 도입	10
2.1. [聚落] ———가름·골	13
2.2. [道路] ———길·거리	16
2.3. [湧泉] ———물·새미	16
2.4. [池沼] ———못·소(수)·통	17
2.5. [河川] ———내·물	19
2.6. [田地] ———밭	20
2.7. [山田] ———드르	21
2.8. [宅地] ———우영·터·전	22
2.9. [周邊] ———구석	23
2.10. [山岳] ———메·오름·산·봉·악	23
2.11. [丘陵] ———믈	26
2.12. [溪谷] ———골새·구릉·굴치	27
2.13. [穴口] ———굴부리·홈	27
2.14. [平野] ———드르·벵디	28
2.15. [樹林] ———곶·술·캐	29
2.16. [石礫] ———머들·수덕	30
2.17. [巖盤] ———케·덕·빌레·돌	31
2.18. [暗礁] ———여	33
2.19. [沿岸] ———코지·영·모살	33
2.20. [바다] ———바르	34
2.21. [浦口] ———개·원	35
2.22. [方位] ———알·뒤·깍·밋·안	35
2.23. [入口] ———도·목	37
2.24. [橋梁] ———다리	37
2.25. 其他 ———눌·돈지·막·자리·팡·홀	38
III. 결론	40
參考文獻	43
<ABSTRACT>	46
<부록 : 제주도 지명어 의미소 목록>	48

I. 서론

1. 연구 목적

제주도는 지리적, 역사적 환경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언어면에서 古形을 많이 保有하고 있어서 그 동안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프랑스의 언어지리학자 J·Gillieron의 말처럼 中央 首都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언어의 古形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제주도 방언은 주변 언어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독특한 방언을 형성하여 왔다. 어휘면에서 100여 년 간의 몽골 지배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웃한 일본과의 교류는 많은 유사점을 갖게 하였다.

제주도 방언이 고대 국어의 再構와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주변국 언어들과의 교류 관계를 연구하는 데 학계의 주목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고유어나 고대 문헌이 부족한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방언이 국어학 연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은 否認할 수 없다. 방언 중에서도 지명어는 보수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방언의 통시적·공시적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 지명어는 제주 방언 연구에 중요하며, ‘방언의 寶庫’라고 할 만큼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선행 연구자들의 지명어의 어원, 표기 형태 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제주도 지명어의 어원을 알기 위해서 고대 북방어(부여계)와의 관련을 밝히기도 하고, 고대어의 고유명사(국명, 지명, 인명 따위) 표기에 착안하기도 했으며, 고대 일본어, 만주어, 몽골어 등과의 관련을 밝히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그간의 연구 성과들이 우리 국어의 본래 모습과 주변의 다른 언어와의 접촉, 유입 관계 등을 고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나, 보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인 고찰에 머문 점도 있다. 지명어의 경우도 한글학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양은 많으나 아직까지는 미진한 점이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지명어에 관하여 어휘 형태를 분석·고찰하고, 의미소(lexeme)를 설정하여 [의미소]별로 묶어 지명어의 의미를 밝히고자 함에 있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이 논문에서 지명어의 형태는 어휘(단어) 형성면에서 단어의 형태를 고찰하고, 의미는 의미면에서 개념적 의미를 중심으로 意味素를 찾고자 한다.

자료는 이미 수집된 많은 자료들 중에서 고유 지명어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제주도 전 지역의 지명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도 지명어를 다 망라하기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표본 추출해서 형태와 의미를 밝히고, 지명어의 구성 방식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자료와 대상 범위는 남제주군에서 발간한 「우리 고유 지명 유래집」 제주시·제주 문화원이 발간한 「제주시 옛 지명」, 박용후의 「제주도의 옛 땅 이름 연구」, 오성찬의 「제주도의 토속 지명 사전」, 한글학회 「한국 땅이름 큰사전」과 그밖의 향토지 등을 주요 자료로 삼는다. 이 자료들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제주도 지명어의 형태’를 밝히고 [意味素]를 추출하고, 의미론과 형태론면에서 제주 지명어를 고찰·분석한다.

이 연구는 공시적 방법을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는 통시적 방법을 병행한다.

3. 선행 연구 검토

어휘면에서 그 동안 ‘제주도 지명어’에 관해서 많은 자료 조사와 연구 성과가 있었다. 도와 시·군 단위의 행정 기관의 대대적인 자료 수집 성과와 박용후, 진성기, 오성찬 등의 노력으로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다. 그리고 현평효, 김홍식, 최범훈 등에 의해서 지명어의 語義를 밝히고, 語源을 따지며 어휘 구조를 분석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보다 체계적이고 세세한 자료 정리는 안 되었다 할지라도, 제주도의 이름, 마을 이름, 그 외의 지형에 관한 이름 등등 여러면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 활동이 있어 왔다.

어원/계통면에서, 현평효(1972)는 “지명을 통해서 본 탐라 언어의 원류”를 통하여 제주 지명어의 [곰], [달], [屹]를 분석하고 제주 언어의 원류를 고조선을 근원으로 한 고구려의 언어, 즉 부여계 언어에 속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탐라의 語義에 대하여”라는 논저에서 ‘耽羅, 儋羅, 毛羅, 耽牟羅, 聃牟羅, 耽浮羅, 屯羅, 涉羅’들은 모두 同名異寫로 다 같이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박용후(1968)는 “耽羅 名義考”라는 논문에서 ‘탐라’를 ‘島山’, 즉 ‘섬의 뒀’로 풀이한 바 있다.

단어 형태면에서는 심여택, 김홍식, 최범훈, 송하진 등의 연구가 있다.

沈汝澤(1972)(1975)¹⁾은 제주도 지명어의 구성 형태를 ‘수식(修飾)요소+근간(根幹)요소’로 보았고, 金洪植(1978)(1985)(1986)(1983)²⁾은 제주도 지명 접미사를 고찰하면서 접미사의 형태, 어원, 변화 과정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웃한 일어, 만주어 등과의 교류 관계까지 고구(考究)하였다. 崔範勳(1969)(1980)(1983)³⁾은 제주도의 특수 환경에서 빚어진 고유어와 한자어의 지명 접미사를 고구하여 계통과, 어원, 고대어적 표기 등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宋河振(1987)은 ‘제주도 고유 지명 보편소에 대하여’에서 ‘지명 보편소’의 개념을 설정하고 육지와 대비를 통하여 차이점을 밝히고, 보편소 하나하나의 구조를 분석하고 역사적 변천 과정을 밝히는 데 노력하였다.⁴⁾

- 1) 沈汝澤(1972) “濟州島 地名研究”, 제주대학교논문집 4집, 제주대학교
 --- (1975) “濟州島 地名의 構成”, <國文學報 7집>, 제주대학국어국문학회
- 2) 金洪植(1978) “濟州島 地方의 地名에 對하여” 제주대학교 논문집 10집, 제주대학교
 --- (1985) “濟州島 地方의 地名語彙考(Ⅰ)” 제주대학교 논문집 20집, 제주대학교
 --- (1986) “濟州島 地方의 地名語彙考(Ⅱ)” 제주대학교 논문집 22집, 제주대학교
 --- (1983) “濟州島 方言의 接尾辭考” [耽羅文化]2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3) 崔範勳(1969) “韓國地名學 研究 序說” 국어국문학 제42,43합병호, 국어국문학회
 --- (1980) “濟州島 地名研究” 경기대학 논문집 8집, 경기대학
 --- (1983) “제주도 특수 지명에 대하여”, 한국어 계통론, 집문당
- 4)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 단어 연구에서는 구조주의적 관점과 형성론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 문법에 바탕을 둔 단어 연구는 최현배(1937, 1961:143)의 씨갈(품사론)에서 비롯되었다. 이희승(1955)은 ‘어휘론적인 단어 연구’를 중심으로 단어를 단일어(simple word)와 합성어(complex word)로 나누고, 합성어는 다시 복합어(compound word)와 첩어(duplicated word), 파생어(derived word)로 나누었다. 구조주의 문법에서는 형태론적 분석 작업이 활기를 띠었는데, 이는 Gleason(1958), Hockett(1958) 등의 구조주의적 접근 방법을 취해 국어 단어의 직소(IC)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익섭(1965)에서는 직소 분석을 통해 복합어를 검토하였고, 허웅(1966, 1983)에서는 중기 국어의 조어법을 다루었다. 김계곤(1968, 1969, 1970)에서는 허웅(1966)의 체계와 기준을 중심으로 파생과 복합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규선(1970)에서는 복합어와 구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검토되기도 하였고, 고영근(1965, 1974, 1975)에서는 구조주의 분석 방법인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를 기준으로 접미사 분류 기준과 목록을 제시하였다. 유목상(1974, 1990)에서는 통사론적 구성에서의 복합어가 형성되는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형성의 관점에 선 연구로 송철의(1977, 1989)와 하치근(1989)에서는 파생어 형성 규칙을 정밀화하고 이에 따른 제약 현상과 음운 현상을 다루었으며, 정정덕(1980)과 서정수(1981)에서는 의미론적 시각에서 복합어와 구의 구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석주(1989)에 와서는 화용론적 접근을, 정동환(1991)에서는 복합어의 형태 구조와 의미 구조의 상관성이 논의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주도 지명어의 단어 형태’를 제각기 다른 용어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간 요소, 기어, 지명 보편소 등의 용어가 지명어를 형태론과 의미론 중 어느 쪽에서 고찰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분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어인 것처럼 보인다.

형태론면에서는 형태소라 할 것이고 어휘론면에서는 어휘소라 할 것인 즉, 필자는 의미론면에서 지명어의 요소를 고찰한 것이므로 [의미소] (lexeme)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¹⁰⁾ 지명어의 구조를 살피는 데 의미를 도외시할 수 없다. 구조가 형식이면 의미는 내용이고, 형식과 내용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 의미소 중 중심적인 것에는 주의미소, 부차적인 것에는 부의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제주도 지명어의 구조가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구조로 이루어짐은 앞에서 논한 바 있고, 의미의 중심이 앞쪽(선행요소)에 치우친다는 주장이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를테면 외돌개의 중심 의미가 ‘개’에 있느냐 ‘외돌’에 있느냐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표준어의 경우는 두 형태소가 합쳐져 한 단어를 이룰 경우 중심의미가 앞쪽, 뒤쪽, 또는 앞뒤 양쪽 등 다양하게 올 수 있다.¹¹⁾ 제주도 방언의 경우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리라 본다. 다만, 제주도 지명어의 경우는 어의(語意) 구조상 중심 의미가 뒤쪽에 편중돼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명어의 구조를 단일형, 파생형, 합성형, 혼합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1. 단일형

제주도 지명어에는 단일어가 많지 않다. 아주 오랜 원시 시대에는 단일어가 많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직업이 미분화(未分化) 상태이며 활동 반경이 그리 넓지 않았을 때에 가족 간에는 ‘밭(田)’이면 ‘밭’ 하나로 의사 소통이 가능했을 것이다. 차츰 ‘밭’이 많아지면서 ‘큰밭, 작은밭’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생겼고, 산

9) “모든 지명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직접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대개 맨 마지막 최소 자립 형식(minimal free form)에 의미의 중심을 두고 그에 선행하는 언어 형식이 한정(수식)적인 기능을 갖는 종속 합성어의 형식을 취한다. ‘관형사(관형형)+명사’의 형식은 물론이고 ‘명사+명사’의 형식도 마찬가지로 통어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송하진(1987), “제주도 고유 지명의 보편소에 대하여”, 국어국문학론총에서

10) 이 연구에서 ‘[]’는 ‘의미소’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한다.

11) 1) 날새, 참나물 - 뒤쪽에 중심 의미
2) 술꾼, 던지기, 넓이, 그리움 - 앞쪽에
3) 가위바위보 - 양쪽에 놓인다.

으로 바다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명을 나타내는 언어는 더 세분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단일형 낱말(simple word)은 단독의 혹은 數箇의 음절이 결합하여 형성된다. 그 結合數에 따라 單音節語 내지 多音節語로 나뉘기도 한다. 흔히 국어는 비교적 2音節 이상으로 된 말이 다수를 차지하여 국어를 다음절어라고 한다. 그러나, 單一語素를 대상으로 삼는다면 어느 정도 음절수가 한정될 것이다. 제주 방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2音節語가 많다. 설사 2音節 이상의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가 어원상으로는 單意素에 半意素가 접합된 것들이다.¹²⁾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지명총람(제주편)」에 나오는 단일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구억(대정읍 동일리)
뱅딕(구좌읍 평대리)
머체(제주시 삼양동)
코지(남제주 성산읍)

1.2. 파생형

파생어의 형성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접사에 따른 파생과 접사에 따르지 않은 파생이 그것이다. 작게는 네 가지로 접사에 따른 파생을 접두 파생과 접미 파생으로 나누고, 접사에 따르지 않은 파생은 내적 파생과 영변화 파생으로 나눈다. 이 글에서는 전자만을 다루기로 한다. 그 이유는 제주도 지명어에서 후자의 예들을 찾기가 어렵고, 이 논문의 목적이 단어의 파생 형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접사에 따른 파생어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서로 의존적이며 합성어에 비해 의미상 서로 밀착되어 있다. 그리하여 단어의 기본 의미에 의미를 첨가하는 특징을 지닌다.

둘째,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통합되는 자리에 형태음소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결과로 어근이 변동을 입거나 접사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파생어는 형태론적 변형이나 통사론적 변형이 생기는 특징이 있다.

접두사는 어근 앞에 붙고 독립성이 없으며 단음절이고, 문법적 기능이 없이 의

12) 金公七(1988) “方言의 語彙”, 「方言學」南陽文化社, p.217

미 변화만을 일으킨다. 그런데 접두사는 설정하기가 다소 어렵다. 그것은 기원적으로 명사나 동사의 어간 같은 실질적인 형태소로부터 접두사로 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두사가 명사 앞에 놓일 경우 관형사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동사 앞에 놓이는 경우는 부사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합성어의 선행 요소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접사나 아니냐의 구별은 쉬운 일이 아니고, 접사도 언어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 변한다. 우리가 현재 공식적으로 접미사로 여기는 것들도 원래는 자립형식이었던 것이 차츰 그 意味 機能이 衰退하여 虛辭化한 것이라고 보아진다.¹³⁾

제주도 지명어의 파생형은 다음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aR형: 셋-오름(둘째 오름, 북군 애월 곽지리)
 웃소·수(남군 남원읍 위미리)
 한질(큰 길, 제주시 삼양동)
 민오름(나무가 없는 오름, 제주시 봉개동)
 - ② Ra형: 나부기(남북으로 길게 나부죽한 오름, 제주시 삼양동)
 가돈이(물을 가두고 있는 지형, 남군 성산읍 고성리)
 건네기(썰물이 돼야 건널 수 있는 바닷가, 남군 성산읍 신양리)
 흙치(흙이 진 듯 깊은 바닥으로 된 바다 밭, 서귀포시 강정동)
 너리(평평한 바닥들이 있는 바다밭, 서귀포시 강정동)
 - ③ aRa형: 한질곶(제주시 도남동)
 - ④ aa형: 품장이(잘 보이지 않는 논, 서귀포시 강정동)
- ※ 기호 사용에서 ‘a=affix, R=Root’를 나타낸다.

1.3. 合成型

합성형은 자립 형태의 두 단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단어를 이루는 형을 일컫는다.

합성어를 분류하면,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품사별 합성어, 반복 합성어, 사이글자 개입 합성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명어’의 성격상 ‘합성명사의 유형’에 국한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지명어는 거의가 합성명사이고 이 논문의 목적이 합성어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3) 金洪植 (1983) “濟州島 方言의 接尾辭考”, [耽羅文化]2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합성법에서의 문제는 “단어+단어=합성어”라는 공식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냐는 데에 있다.¹⁴⁾

서정수(1981:387-390)는 언어 의식이나 형태론적 기준으로는 합성어를 명확히 금궂기가 어렵다고 보아, 좀더 심층적이고 일반적인 합성어 설정 기준으로서, 의미 관계를 바탕으로 합성어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안한 바 있다.¹⁵⁾

합성어는 적어도 두 구성 요소 중 어떤 의미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적 변화가 전혀 없을 때는 합성어가 아니고 句 또는 成語의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합성어 설정에는 형태/형태소와 의미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미 관계는 합성어 설정을 위한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어가 바로 언어의 형태 단위이지만 의미와 유관하기 때문에 합성어의 어휘 형성에서도 의미와 의미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

제주도 지명어의 대다수는 합성어다. 그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동형, 종속형, 융합형이 그것이다. 대동형은 두 단일어소가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로 합쳐진 것이고, 종속형은 한 어소가 다른 어소를 수식하는 형태이다. 융합형은 두 단일어소가 합쳐져서 제3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그러나 ‘제주도 지명어’에서 융합형은 그 예를 찾기가 힘들다.

① R1R2(대동)

< (N+N) + (N+N) > 밧고랑논고랑(바닥 모양이 밧고랑, 논고랑처럼 생긴 바다, 서귀포시 강정동)

14) 합성법상의 유형에 관해서는, 崔仁一 (1990) “우리말 말 단위의 어 관한 연구(1)” 도서출판 제주문화 참고.

15) 합성어는 그 성분의 비부리성 융합 관계를 바탕으로 설정하고 보아 다음의 세 유형으로 갈랐다.

첫째, $A+B \rightarrow Ab$ 와 같은 의미 관계를 갖는 합성어이다. 이때 두 성분의 요소 가운데 A와 B의 의미가 바뀐 경우이다.

몸+살→몸살(몸이 아픔), 몸+집→몸집(몸의 부피), 큰+죄→큰죄(큰 죄수), 큰+재물→큰재물(큰 인물), 작은+그릇→작은그릇(작은 인물), 실+바람→실바람(실이 나는 것)

둘째, $A+B \rightarrow aB$ 와 같은 의미 관계를 갖는 합성어이다. 이때 두 성분의 요소 중 앞 A의 의미가 바뀌는 경우이다.

빈+말→빈말(기정말), 큰+집→큰집(형님집), 천+소리→천소리(휘둥소리), 모깃+소리→모깃소리(작은소리), 안성+맛춤→안성맛춤(꼭 맛음), 기울+심다→겨울심다(모범심다), 돌아+가다→돌아가다(되돌아가다)

셋째, $A+B \rightarrow X$ 와 같은 의미 관계를 갖는 합성어이다. 이때는 두 구성 요소인 A와 B의 의미가 모두 바뀌어 X라는 제3의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꽃+밭→꽃밭(여가들), 꽃+봉오리→꽃봉오리(어린이), 물+물→물물(위험), 바지+저고리→바지저고리(무능력자), 밤+손님→밤손님(도둑), 밤+낮→밤낮(물), 손+발→손발(힘력관계), 집+안→집안(친척), 피+밤→피밤(도둑), 흑+백→흑백(갈장옷), 돌+대가리→돌대가리(바보), 칠+뜨기→칠뜨기(바보), 돌아+가다→돌아가다(죽다), 날개+흔치다→날개흔치다(잘 팔리다), 썩심치+키다→썩심지켜다(눈독을 들이다)

서정수 (1981) “합성어에 관한 문제”, 한글 173·174호, 한글학회

② R1R2(종속)

- <N+N> 산우장(墓+우장(울타리), 제주시 삼양동)
가매앞(가마를 굽던 앞 자리, 남군 대정 무릉리)
돌-오름(石岳, 북군 애월 어도리)
방에-오름(砧岳, 서귀포시 동홍동)
활-오름(弓岳, 서귀포시 도순동)
자-스름(城山岳, 잣-오름, 서귀포시 상예동)
- <As+N> 너븐내(서귀포시 예례동)
너븐돌(넓은 돌, 남군 남원읍 신례리)
- <Vs+N> 조순드리(절벽을 쪼아 만든 지름길, 남군 안덕면 대평리)
들은돌(擧石洞, 제주시 삼양동)

③ R1R2-R3(종속)

- <(N+Vs)+N> 쇠떨어지는구멍(방목 소가 떨어지는 바위 사이의 구멍, 남군 남원 남원리)
- <(N+N)+N> 절물오름(寺水岳, 제주시 봉개동),
가삿기-오름(개새끼오름, 제주시 오라동),
굴머리-오름(谷頭岳, 제주시 연동),
영세미-오름(靈川岳, 서귀포시 영천동),
정물-오름(井水岳, 북군 한림 금악리),
물메-오름(水山岳, 북군 애월 수산리)
- <(N+As)+N> 흙붉은-오름(土赤岳, 제주시 아라동),
남짓은-오름(木密岳, 제주시 연동),
- <(As+N)+N> 근내골(細川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 남군 남원읍 위미리)
돈물통(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나는 곳, 제주시 아라동)
흰모살코지(흰 모래가 있는 해안가 바위, 남군 남원읍 위미리)
- <(Vs+N)+N> 걸시-오름(門關岳, 제주시 연동),
산세미-오름(活泉岳, 북군 애월 광령리),
- <{(Vs+N)+N}+N> 돈내곶도(廻+川+코(入)+도, 제주시 해안동)
- <{(N+Vs)+N}+N> 적사먹는물도(남군 남원읍 하례리)

*기호 사용에서 'R=root, N=noun, Vs=verb stem, As=adjective stem'을 나타낸다.

1.5. 混合型

혼합형은 파생형과 합성형을 합친 형태다. 제주도 지명어의 혼합형은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 ① aR1R2 : 옷세오름(아래 세오름과 상대되는 세 오름, 북군 애월 광령리),
새출왓(새로 조성된 꼴밭, 제주시 삼양동)
별진밭(군사 주둔지, 매우 긴 밭, 남군 남원읍 한남리)
튼짓우영(다른 집의 울타리 밭, 제주시 화북동)
- ② R1R2a : 답단이(답을 쌓아 사특한 것을 막았던 자리·거육대·방사탑, 남군대 정보성리)
막시리(물+실+이, 말을 실어 내는 곳, 남군 대정 가파리)
굴내미(제주시 노형, 谷+越, 出+이)
오로코미(오소리가 많이 서식했던 곳, 남군 대정 신도리)
섬밭이(사람이 찾아가려면 기어가야 하는 바위, 남군 성산읍 성산리)
- ③ R1a1R2a2 : 서넉골챙이(서귀포시 중문동)
알넉테기(아래쪽 입구, 알+넉+턱+이, 제주시 이호동)
- ④ R1a1R2R3 : 도둑넌묻은데역(도둑질 한 여자를 묻은 잔디밭, 북군 애월읍 구 엄리)
- ⑤ R1R2aR3 : 노리손이오름(獐遜岳, 제주시 연동),
불칸디오름(火燒竹, 제주시 봉개동)
용눈이오름(龍眼岳, 북군 구좌 종달리)
동검은이오름(東巨門岳, 북군 구좌 송당리),
뒤굽은이오름(後曲岳, 북군 구좌 송당리),
- ⑥ R1aR2 : 오리오름(竝岳, 제주시 봉개동),
납작이내(깊이가 얕은 내, 제주시 삼양동)

2. 제주도 지명어의 의미소(意味素)

2.0. 도입

단어는 중심 의미(中心意味), 개념적 의미(概念的 意味), 또는 외연적(外延的)·인식적(認識的) 意味(conceptual meaning or denotative, cognitive meaning)를 갖는다. 이 의미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 또는 문장 속에서뿐만 아니라 독자적

으로 그 단어가 지니는 지시적 기능에 따라 스스로 보유한 의미로서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심적인 요소이다.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의식 속에서 이들 단어에 대해 추론해 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적이며 핵심이 되는 인식의 집합이 있다. 이것이 곧 그 언어의 개념적 의미이다. 이것을 종래에는 중심 의미, 혹은 기본 의미로 불러 왔다.¹⁶⁾

이 연구에서 논하려는 의미(意味)도 이 중심 의미, 혹은 개념적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논하는 [意味素]는 형태론에서 말하는 형태소(形態素)의 개념과는 다르다. ‘-개, -도, -굴’ 등을 흔히 접미사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지명어의 경우는 어휘 성격상 접미사로 일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있다. 김홍식, 송하진 등에 의해서 ‘접미사 처리 부당성’을 언급한 논저도 있지만, 확정된 결론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金洪植(1978)은 “앞가름, 뒷가름의 [가름]語辭는 접미사란 일반적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하겠으나, 이 어사가 방언에서 주로 지명과 관련되어 특색을 지니고 있으므로 地名特殊型으로 보고 地名接尾辭로 취급하며, 一般接尾辭의 개념과는 그 類가 다름을 말하여 둔다.”라고 하였다.¹⁷⁾

송하진(1987)은 “가름은 안가름, 동가름 등과 같이 후절에 붙기도 하지만, 가름팓, 가름안 등과 같이 전절에 놓이기도 한다. 가름이 ‘ㄱㄹ·갈+음’의 형태로 보면 접미어에 다시 접미사가 드는 형태가 되므로 접사로 봄은 부당하다.”고 하였다.¹⁸⁾

‘-도’의 경우에도,

예) 정청도
만지넷도

등에서는 뒷쪽에 붙지만,

예) 도 막아진 밧
도 트라.
도에 앉지 말라.

16) 沈在箕, 李基用, 李廷玟(1984) 「意味論序說」, 集文堂 PP.19~20

17) 金洪植(1978) “濟州島 地方의 地名에 對하여” 제주대학교 논문집 10집, 제주대학교

18) 宋河振(1987) “제주도 고유 지명 보편소에 대하여” 국어국문학논총, 삼영사

등의 예에서는 앞쪽에 놓이고, 자립 명사의 형태로 쓰인다.

‘-개’의 경우,

예) 모살개
지삿개
펼개

등에서는 뒷쪽에 붙지만,

예) 갯곶(海邊)
갯마을

등에서는 앞쪽에 붙는다.

‘밭, 메, 코지, 다리’ 등도 원래는 자립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 한자어에 밀려 그 의미가 약해지면서 접미사처럼 쓰이게 되었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어휘·음운·문법 등 모든 것이 변한다. 그 중에서 가장 변화가 심한 것은 어휘이다. 어휘 자체의 생명력에 의해서 변하고, 다른 문화와의 접촉 과정에서 섞이고 변화·발전하는 것이다.

지명어의 경우는 정책적인 의지에 따라 인위적인 改名이 이루어져 왔음을 문헌 등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지명은 인류 생활의 시작과 함께 지어졌을 것이다. 그것은 문자 이전 시대부터이며, 순수한 고유어로 命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후세에 한자가 전래 사용되게 됨에 따라 고유어로서의 지명이 점점 한자명으로 대체되어 나갔다. 이를테면, 三國史記 地理志의 지명 변경의 事例 등에서 보아 잘 알 수 있다.

[三國史記] 경덕왕 16년조에

冬十二月 改沙伐州爲尙州 領州一郡十縣三十 畝良州爲良州 領州一小京一郡十二縣三十
四…漢山州爲漢州…首若州爲朔州…熊川州爲熊州…河西州爲溟州…完山州爲全州…

라고 되어 있어서 당시에 지명을 바꾸는 일이 번다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金亨奎(1955:49-51)는 國語史에서 지명 변경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첫째로, 新地名의 字數를 세어 보면 정확한 제한이 있어서 州는 ㅅ 예에서 보듯이 모두 一字名으로 고쳐졌으니 沙伐州, 漢山州, 完山州와 같이 二字名으로 되었던 것도 尙州, 漢州, 全州로 一字名으로 고친 것이다.

둘째로, 사용된 글자의 성질부터 일람한다면 언짢은 글자는 피하고 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진 한자를 택한 것 같다.

셋째로, 우리 국어 역사상 가장 문제되는 점으로 처음에 말했듯이 舊地名은 비록 漢字로 기록되었으나 그것은 순우리말을 표현한 것 같은데 新地名은 우리말과는 전혀 관계없이 한자 중에서 아름다운 뜻을 가진 글자들을 결합해서 新地名을 만든 것이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현대 지명어는 많은 것들이 일본 강점기에 지어진 것으로, 언중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다. 특히 마을 이름 등이 심한 편인데, 이제라도 바른 이름, 지역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우리식의 지명어로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 방언의 또 다른 변화 요인으로 외침과 유배(流配) 등의 외부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고려 시대 元의 近百年間의 지배에서 받은 영향은 토착사회에 많은 변화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元·明代에는 그들의 유배지로 이용되어 죄인들을 집단으로 제주에 보내 살게 하였다. 또한 明은 北元征伐 후 귀순해 온 자들을 제주에 보내 살게 하였음을 여러 문헌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이상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제주도 지명어는 자연적인 변화와 인위적인 변형, 그리고 다른 언어와의 교류·접촉에 따른 변형 등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지명은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

2.1. [聚落] — — 가름/카름·골

[가름/카름]

빌레가름(암반으로 형성된 지형, 남군 남원읍 한남리)

묵은가름(옛 동네, 남군 남원읍 수망리)

큰가름(큰 동네, 남군 성산읍 시흥리)

동카름(마을 이름, 제주시 삼양동)

물카름(물 가까이에 형성된 마을 이름, 제주시 삼양동)

영카름(가파른 낭떠러지 밭(동네), 제주시 내도동)

안카름(마을 중심지, 남군 남원읍 위미리)

당카름(堂이 있는 동네, 남군 남원읍 하례리)

[가름]은 ‘밭’을 뜻하기도 하고 ‘동네’를 의미하기도 한다. 원래는 ‘밭’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마을만을 의미하던 것이었으나 마을이 없어지면서 지역의 명칭만 존재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가름]은 [산악]이나 [임야]에 대응되는 의미로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름]의 어원에 관해서는 두 견해가 있다.

첫째는 방언 어휘 ‘갈르다(分)’란 동사 어간 ‘갈르’에 명사 형성 접미사 ‘口’음이 접미되어 명사화하는 과정에서 第一音節 末音 ‘ㄹ’음이 탈락되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단어 형성면에서도 동사에서 명사형을 형성할 때는 ‘語幹+m’의 형성 방식을 취하는 국어일반적인 법칙과도 일치한다.¹⁹⁾

둘째로, 滿洲語 [Hala](마을, 國, 一族)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만주어 [H]음은 국어의 [K]음과 음운 대응이 되므로 [Hala]는 바로 국어의 [Kala]에 대응된다고 하겠으며, 이것은 또 국어의 고지명 내지 국명인 ‘加羅’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다.²⁰⁾

여기서 필자는 후자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이름’이 ‘이르-’에서 온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가름’이 ‘가르-(갈-)’에서 온 것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골/굴]

논짓골(남군 대정읍 상모리)

차목골(잠시 쉬는 곳, 제주시 삼양동)

막은골(외적이 침범하는 데 용이치 못한 지역, 塞達, 서귀포시 색달동)

정동골(덩대이 덩굴이 많은 곳, 제주시 도련동)

항골(항아리처럼 패인 지역, 제주시 도련동)

해짓골(海底洞, 제주시 일도동)

19) 金洪植 (1978) “濟州島 地方의 地名에 對하여” 제주대학교 논문집 10집, 제주대학교

20) 金洪植 (1978) “濟州島 地方의 地名에 對하여” 제주대학교 논문집 10집, 제주대학교

송애기골(송아지 같은 지형, 남군 남원읍 위미리)
 내골(細川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 남군 남원읍 위미리)
 논골(沓洞, 북군 애월읍 고내리)
 냇골(내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네, 북군 애월읍 고내리)
 염소골(남군 대정읍 상모리)
 선독골(선돌(立石)이 있는 지역, 제주시 삼양동)
 밤낭골(栗木洞, 제주시 도련동)
 장전이골(康田, 곧 康氏 소유의 밭이 있던 지역, 제주시 도련동)
 석골(石窟, 제주시 봉개동)

[골·굴]은 ‘밭. 곡(谷), 마을, 동네’ 등을 의미한다. ‘정동골’에서 보듯이 ‘○
 ○이 많이 나는 지역’, ‘○○이 많이 사는 지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밤나무가 많
 아서 ‘밤낭굴’, 염소가 많이 서식해서 ‘염소굴’ 등으로 불린다. ‘항골’처럼 ‘골
 짜기 모양으로 움푹 패인 지역’을 가리키기도 한다.

[골·굴]의 어원에 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골]型은 高句麗系 地名 ‘忽’型과 關聯되는 것으로 推定되며, 또 中世 國語 ‘골(谷·
 洞)’과도 비교되는 것으로 생각된다.²¹⁾

고구려 지명에 많이 쓰이는 ‘忽’은 漢字語音이 그 當時도 ‘홀’이었으리라 믿어지며,
 이에 該當되는 말로 滿洲語 ‘holo’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hol>kol로 변하였다.²²⁾
 ‘굴(골)’형 지명은 분기점 즉 江流·川流의 분기점에 발달한 취락이란 의미일 것이다.

인류의 자연 취락은 防風·防敵, 그리고 水運과 漁獵을 위하여 ‘물가’에서 발달되었으
 니, 소위 사대 인류 문명 발상지가 그것이요, 대도시·소읍, 그리고 어느 촌락 하나라도,
 필히 그 江·川과 並置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골·굴]형 지명이 고구려계이며 ‘谷, 洞’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
 나, ‘江流·川流’의 분기점 즉 수로(水路) 분기점이라는 견해는 납득하기 어렵다.
 제주도라는 지역의 지형 특성상 촌락 형성이 江·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골·굴]형 지명은 북방계 지명인데 人的 交流에 따라 제주에 유입되어 ‘마을,
 밭, 谷’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하다.

21) 金洪植(1985) “濟州島 地方의 地名語彙考(Ⅰ)” 제주대학교 논문집 20집, 제주대학교

22) 金亨奎(1974) 「國語史研究」, 一潮閣 p.p7~8

2.2. [道路] — — — 길·거리/커리

[길] 구린**길**(거린·갈린·나누어진 길, 제주시 삼양동)

맹지므르**길**(명주+므르+길, 제주시 삼양동)

절간**길**(절로 오르는 길, 제주시 삼양동)

진밭**길**(진 밭 길, 마을이름, 제주시 삼양동)

거문**길**(남군 안덕면 사계리)

웃므실**길**(웃+므실+길, 제주시 삼양동)

몰**길**(말을 몰고 다니던 길, 남군 대정 동일리)

[거리/커리] 비석**거리**(남군 대정읍 하모리)

득두**거리**(마을 이름, 듬들이 있는 거리, 제주시 삼양동)

작벽**거리**(작벽이 있는 거리, 작벽(벽작)은 돌무더기, 제주시 도련동)

췌대**거리**(췌대에 불을 밝힌 거리, 제주시 삼양동)

수수막**거리**(巡守幕 거리, 제주시 화북동)

상낭**거리**(삼나무가 많은 지경 제주시 봉개동)

석은세**거리**(석은 세 갈래 길, 제주시 영평동)

듬돌**거리**(듬돌 들기 하던 거리, 제주시 용담동)

태역발**거리**(자연 잔디가 넓게 깔려 있었음, 남군 대정 일파리)

세**커리**(식커리, 세 갈래 길, 제주시 노형동)

[길]은 [길]의 구개음화 현상으로 변화된 표기이다. [거리]는 현대어에서와 똑같이 ‘길거리’를 의미하면서, 약간 다른 의미로 씌어지고 있다. 곧, [길]은 ‘도로(道路)’의 뜻이 있고, [거리]는 ‘갈림길, 번잡한 거리, ○○이 많이 모이는 동네’의 의미가 강하다. [커리]는 ‘거리’에 ‘ㅎ’음이 첨가된 형태이다.

거문길(남군 안덕면 사계리)과 득두거리(마을 이름, 듬들이 있는 거리, 제주시 삼양동)에서 보듯이 본래는 ‘길(道路)’을 의미하던 것이 ‘마을’ 이름으로 바뀐 것은 의미가 확장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3 [湧泉] — — — 물·새미/샘

[물] 새나**물**(새롭게 못을 파서 솟아나는 물, 제주시 도련동)

억수**물**(용출량이 많은 물, 제주시 도련동)

골각물(물이 조금씩 솟아나는 물, 제주시 아라동)
 두어물(서귀포시 중문동)
 신영물(神靈水, 남군 대정 하모리)
 개죽은물(남군 대정 인성리)
 도레물(두레박으로 떠올리는 물, 남군 대정 인성리)
 괴물(암반에 물이 있는 곳, 남군 대정 구역리)
 구시물(구유 형태의 하천, 남군 남원 남원리)
 개맛물(포구에서 솟아나는 물, 남군 남원읍 태흥리)
 영물(큰 바위 밑에서 솟아나는 물, 남군 남원읍 위미리)
 김서방물(金氏 가문이 이용하던 물, 남군 남원읍 신례리)
 생이물(바위 틈에서 솟는 작은 샘물이 있는 곳, 남군 성산읍 성산리)
 보셋물(물건 등을 씻는 물, 북군 애월읍 고내리)

[새미/샘]

공새미(貢泉味, 남군 남원읍 신례리)
 개역새미(개역(미숫가루) + 새미, 제주시 도련동)
 절새미(小林寺라는 절에서 이용한 샘, 제주시 화북동)
 드르새미(들판의 샘, 제주시 연동)
 만지샘(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 서귀포시 중문동)

[물]은 쓰임새가 다양하다. ‘바닷가, 하천’을 두루 의미하며, 자연적인 [샘], 인공적인 [샘]을 뜻하기도 한다. ‘고인물’의 뜻으로도 쓰인다. ‘샘/새미’ 등으로 실현되는 [샘]은 제주인들의 소중한 식수원이다. 공세미(貢泉味)에서 보듯이 ‘샘물’은 진상품의 하나로 여길 정도로 귀했다.

2.4. [池沼] --- 못·소/수·통

[못·소/수·통]

[못] 개광못(광광나무가 있는 못, 제주시 도련동)
 할망당못(할망당이 있는 못, 제주시 도련동)
 갈못(渴-못, 제주시 도련동)
 노루못(鹿泉, 제주시 건입동)
 자왈못(자왈:수풀이 마구 형클어진 곳, 제주시 해안동)
 소못(서귀포시 회수동)

골못(蘆池, 남군 대정읍 하모리)

조개못(조가 姓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살았음, 남군 대정 하모리)

수월이못(수월이라는 기생이 살았던 곳, 남군 대정 안성리)

맨초남못(상수리나무가 무성했던 곳, 남군 대정 신도리)

싱피못(지하 암반 때문에 물이 고인 못, 남군 남원 남원리)

빌레못(巖盤 위에 있는 못, 북군 애월읍 어음리)

[소/수] 떼무소(떼(잔디) + 물 + 소(沼), 제주시 아라동)

한수·소(한(大) + 물 + 소(沼), 제주시 아라동)

종냄이소(때죽나무가 근처에 있음, 제주시 아라동)

고냉이소(중문 하원)

올리소(야생 오리가 많았던 곳, 남군 남원읍 신례리)

고별감빠진소(고별감이 빠졌던 물통, 남군 성산읍 오조리)

웃작지소(웃 + 작지(자갈) + 소(沼), 북군 애월읍 고성리)

진소(긴 소, 長沼, 서귀포시 색달동)

말소(馬沼, 말에게 물을 먹이던 곳, 서귀포시 색달동)

웃수(고망물 위에 있는 연못, 남군 남원읍 위미리)

죽쟁이수(언덕에 있는 물을 식수로 썼음, 남군 남원읍 한남리)

[통] 안새통(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많이 괴는 물통, 제주시 회천동)

자구남통(자귀나무가 있고 물이 잘 고이는 지역, 제주시 회천동)

종남통(죽나무가 있고 물이 잘 고이는 지역, 제주시 용강동)

도구리통(돼지 먹이통 같은 물통, 제주시 용담동)

뒷못통(남군 남원읍 태흥리)

까마귀통(까마귀가 자주 앉았던 못, 남군 성산읍 오조리)

흑통(臼 + 통, 제주시 화북동)

돈물통(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나는 곳, 제주시 아라동)

가메통(가메창, 가메물통, 가메물, 가메물흙, 제주시 노형)

[못·소/수·통]는 다 같이 ‘연못, 소택(沼澤)’을 의미하며 하천(河川)을 뜻하기도 하고, 샘을 나타내기도 한다. 엄밀히 말하면, [못·소/수·통]을 구별하는 엄격한 기준은 없다. 통념상으로 ‘통’은 규모가 조금 작은 ‘물’을 의미한다. [못·소]는 ‘고인 물’을 가리킨다. [소]는 ‘沼’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소’를 고유어로 본다는 것인데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²³⁾

2.5. [河川] — — — 내/나리/내창·물

[내/나리/내창·물]

[내/나리/내창] 납작이내(깊이가 얕은 내, 제주시 삼양동)

섯내(제주시 도련동)

웃무드내(上無頭川, 제주시 용강동)

다끄내(닭은 개, 제주시 용담동)

앞내(서귀포시 회수동)

너븐내(서귀포시 예례동)

거림내(서귀포시 하원동)

머으내(서귀포시 하원동)

닥그나리(修近川, 닭은 내, 제주시 도평동)

원뒤내창(圓明寺 뒷내, 제주시 화북동)

구시물내창(구유통 형상의 내, 제주시 노형동)

[물] 구시물(구유 형태의 하천, 남군 남원 남원리)

김서방물(金氏 가문이 이용하던 물, 남군 남원읍 신례리)

내(川)의 대부분이 건천(乾川)인 까닭에 타지방에 비해 내의 이름이 많지 않다. 오히려 앞에서 살핀 [물·못·소(수)·통·새미] 등 지소(池沼)의 명칭이 많이 보이는 것은 식수를 비롯한 물 문제의 해결을 [내]보다는 [지소]와 [湧泉]에 의존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내창]은 [내]와 의미상 별 차이가 없으나 [내창]은 [내]보다 숲이 우거지고 깊이 패인 곳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못·소(수)·통·새미] 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물·소]가 [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의 [내]의 대부분이 乾川인 까닭에 평소에는 ‘고인 물’ 상태로 있다가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에 바다로 흐르는 하천으로 변한다.

23) ‘소’를 ‘沼’로 표기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예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달 : 소담 湫 : 소추 沼 : 못쇼(훈몽자회)

훈 기픈 소해 다드라 : 奎一深潭(불정심다라니경언해 12)

여홀란 어딴 두고 소해 자라 온다(만전춘 별사)

環碧堂 龍의 소히 빚머리에 다하세라(성산별곡)

말가흔 기픈 소회 온간 고기 뛰노느다(어부사시사)

송하진(1987) “제주도 고유 지명의 보편소에 대하여” 국어국문학논총, 삼영사

2.6. [田地] — — — 왓/밭/팻·밭

[왓/밭/팻·밭]

개장이왓(남군 대정읍 상모리)

사기왓(사기그릇+밭, 제주시 삼양동)

새출왓(새로 조성된 풀밭, 제주시 삼양동)

고지왓(이랑 긴 밭. 고지=이랑, 제주시 삼양동)

술대왓(과녁을 세웠던 밭, 雞鬼를 물리치는 술대, 술대/숫대를 混用한 것처럼
보임, 제주시 삼양동)

섯굴왓(서귀포시 중문동)

개쟁이왓(개장국 한 그릇과 바꾼 밭이라는 뜻, 남군 대정 상모리)

놀래왓(한 농부가 밭을 갈다 구렁이가 땅 속에서 나와 놀란 밭, 남군 대정 상
모리)

문서왓(밭을 매매할 때 최초로 문서로 작성했음, 남군 대정 상모리)

극대왓(극대는 장승, 곧 장승이 있던 밭, 남군 대정 상·하모리)

눌굽드로왓(눌(날가리)+굽(밭침)+드로(盆地)+왓, 북군 애월읍 고내리)

진서리왓(긴+서리(흙과 모래가 모인 곳)+왓, 북군 애월읍 광령리)

참남밭(참나무가 있던 밭, 제주시 삼양동)

툼밭(트멍(사이) 밭, 제주시 아라동)

동산밭(서귀포시 중문동)

진밭(긴 밭, 제주시 삼양동)

흑밭(서귀포시 중문동)

빈녀코지소금밭(빈녀 모양의 코지에서 소금을 생산하던 곳, 서귀포시 강정동)

고냉이머들얏은밭(고인돌처럼 큰 돌들이 있는 밭, 서귀포시 강정동)

큰우영팻(서귀포시 중문동)

머흘팻(바닥에 돌들이 많은 바다, 서귀포시 강정동)

구렁팻(제주시 삼양동)

동너븐밭(東廣田, 북군 애월읍 구엄리)

서너븐밭(西廣田, 북군 애월읍 구엄리)

항아진밭(항아리같이 움푹 패인 바위, 남군 대정 신도리)

별진밭(군대 주둔지, 남군 남원 남원리)

돛터럭밭(수심이 얇은 바다, 남군 남원읍 신례리<공천포>)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돛터럭밭, 머흘팻, 빈너코지소금밭 등은 바다밭을 의미한다. 육지와 바다를 구별없이 생활했던 선인들의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제주 지역의 농경지가 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마을의 구역이 밭지명으로 구획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밭·왓·팻] 등의 同義語(이형태)들은 음운론적 조건에 선택되는 것으로 송하진은 그 음운론적 조건을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²⁴⁾

15세기 문헌에도

대밭 : 竹田<龍歌 5>

풀완 : 火田<杜詩諺解 17>

등의 예가 있어서 낯설지 않은 지명이다.

2.7. [山田] — — — 드르

[드르]

평드르(평이 많은 밭, 제주시 삼양동)

쇄죽은드르(소가 죽은 작은 밭, 제주시 화북동)

소남드르(소나무가 있는 작은 밭, 제주시 아라동)

쇄드르(소처럼 생긴 등성이, 제주시 영평동)

몰죽은드르(말이 죽은 작은 밭, 제주시 영평동)

[드르]는 [도레·돌랭이] 등으로 실현되며, ‘작은 밭’을 의미한다. 등성이 진盆地地形의 작은 밭을 의미하기도 한다.

송하진은 도레는 중세 국어 돌[懸]에 소급되는 것으로 보고 그 돌[懸]은 몽고어 동사 어간 tat-와 비교될 수 있다고 하였다.²⁵⁾ 최범훈(1983)은 이를 높다는 뜻의 고어 ‘달(達)’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²⁶⁾ 즉, ‘돌’型 地名에 關하여 “梁·啄·徒·刀·擔·魯 등이 모두 ‘드르·드리·드레·다라·들’ 등의 漢字譯이라면 其他 古地名 中에서 ‘突·珍·珍兮·珍也·月良·月羅·多羅·等良·刀良·刀乃·都羅·都利·都里·豆盼·豆乃伊 등등도 亦是 마찬가지로의 種種의 借字라고 解釋할 수밖에 없다.”²⁷⁾ 고 하였다.

24) 宋河振(1987) “제주도 고유 지명 보편소에 대하여” 국어국문학논총, 삼영사

25) 宋河振(1987) “제주도 고유 지명 보편소에 대하여” 국어국문학논총, 삼영사

26) 최범훈(1983) “제주도 특수 지명에 대하여”, 한국어 계통론, 집문당

27) 李內燾(1966) “두레’와 그 語源에 대한 考察”, 가람 李秉岐先生頌壽論集

필자의 견해로는 [드르/도레/돌랭이] 등은 ‘돌(懸)’을 의미하던 것이 한자가 들어오면서 ‘돌’은 점차 쓰이지 않게 되고 위축된 채 민간에 남아 ‘작은 밭’을 가리키는 말로 명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2.8. [宅地] — — [우영/우연·터·전]

[우영/우연] 물새**우영**(물새가 찾아드는 울타리, 제주시 삼양동)

동**우영**(동쪽에 있는 우영, 제주시 삼양동)

툰짓**우영**(다른 집의 울타리 밭, 제주시 화북동)

산물낭**우영**(서귀포시 중문)

홍개**우영**(홍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텃밭, 남군 대정 일파리)

뽕대기**우연**(뽕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우영, 남군 표선면 표선리)

[터] 묵은**터**(예전에 사람이 살았던 터, 제주시 삼양동)

화**터**(봉수대의 터, 제주시 삼양동)

제**터**(삼신단의 터, 제주시 삼양동)

불칸**터**(불에 탔던 터, 제주시 삼양동)

원집**터**(서귀포시 중문동)

독거미집**터**(독거미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집터, 남군 대정 안성리)

숯굴**터**(숯을 굽던 자리, 남군 대정 무릉리)

사장**터**(군사들이 활쏘기 하던 곳, 남군 남원읍 한남리)

석동이**터**(석동이라는 분이 처음 이주·정착 한 곳, 남군 남원읍 신흥리)

[전] 영**전**(靈田, 제주시 삼양동)

관**전**(官田, 제주시 도련동)

송**전**(松田, 제주시 아라동)

향교**전**(鄉校田, 제주시 영평동)

사장**전**(射場田, 선비들이 활을 쏘던 훈련장, 남군 성산읍 고성리)

[우영·터·전]은 가옥이나 건물과 관련있는 의미소들이다.

[우영]은 ‘우연’으로도 실현(實現)된다. 집 주위의 울타리 안에 있는 ‘텃밭’을 의미한다.

[터]는 집이나 절 등의 건물이 있었던 곳을 의미한다. ‘숯굴터’처럼 ‘○○을 하던 자리’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전/田]은 후대에 내려오며 고유어가 한자어에 밀리면서 [터], [밭] 등의 의미소를 포괄하는 새로운 지명 의미소로 정착하게 되었다.

2.9. [周邊] — — [구석]

[구석] 개다리**구석**(송악산 절벽 밑 얇은 바닷가, 남군 대정읍 상모리)
삼밭**구석**(삼 재배에 적당한 토질을 가진 지역, 남군 안덕면 동광리)
***구석밭**(구역리의 옛이름, 남군 대정읍 구역리)

[구석]은 ‘밭, 지경’을 의미하는데, ‘바닷가의 구석진 곳’을 가리키기도 한다. 다른 지명어들과 마찬가지로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그러나, [구석]이 ‘구석밭’에서처럼 지명어의 앞쪽에 놓일 경우는 ‘구석진 곳’의 의미로 쓰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구석(아홉섬)지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구석밭’은 곧 ‘아홉섬지기의 큰 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대에 ‘구석밭’이 ‘九億里’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바뀐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2.10. [山岳] — — 메/뫼/미, 오름, 산, 봉, 악

[메/뫼/미] 바리-**메**(鉢峰, 북군 애월 어음리)
작은물**뫼**(소수산봉, 남군 성산읍 신양리)
염통**뫼**(염통 같은 형상의 오름, 제주시 연동)
연디**미**(중문 대포동)
알**미**(알<알, 卵>+미(동산))
괘살**미**(猫山峰, 북군 구좌 서김녕리)

[오름] 망**오름**(봉수대가 있던 오름, 제주시 삼양동)
원당**오름**(元堂岳, 제주시 삼양동)
눈**오름**(누운 오름, 제주시 삼양동)
지세**오름**(기와를 구운 동네, 제주시 삼양동)
민**오름**(나무가 없는 오름, 제주시 봉개동)
어승생**오름**(御乘生岳, 제주시 해안동)
볼래**오름**(서귀포시 중문 하원)

베릿내오름(別老岳, 서귀포시 중문동)

노리오름(서귀포시 중문 하원)

알새오름(서귀포시 중문 하원)

알오름(아래쪽 오름, 또는 卵岳, 서귀포시 중문동)

녹하지오름(鹿下旨岳, 사슴이 많이 살았음, 서귀포시 중문동)

걸세오름(살팽이와 닮은 산, 혹은 살팽이가 많이 살았던 산, 남군 남원읍 하례리)

제주도의 산악 이름에는 우리말 이름에 [매·미·오름]이 있고, 한자 이름에 [山·峰·岳]이 있다. 보통 제주도민들은 제주 지역의 기생 화산을 [오름·악·미·봉·산]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과 더불어 해안 지대에 있는 오름에 대해서는 오름보다는 峰이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그것은 조선 시대에 해안 지역은 중산간 지역의 오름보다는 봉수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통신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중산간 지역의 오름은 봉이라고 하는 것보다 악(岳)이라고 지도에 표현한 것이 많다.²⁸⁾

미는 모리>모이>뫼>메>미의 과정으로 변천하여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²⁹⁾

한편, [미]는 ‘물’을 뜻하기도 한다. 골개미(谷+浦+水, 제주시 삼양동)는 산과는 다른 물을 뜻한다. [미]가 ‘산’과 ‘물’을 동시에 의미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이 있는 곳에 물이 있고, 물이 있어야 완전한 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식했던 선인들의 思考를 짐작할 수 있다.

제주 지역의 고유어 지명 ‘오름’의 어원(語源)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언급이 있었다. 「탐라지」(李元鎮)의 ‘以岳爲兀音’과 「南槎錄」(金尙憲)의 ‘以岳爲吾老音’ 등에서 ‘오름’에 대한 漢子音 기록이 보이고, 박용후(1964)는 ‘오름’의 기록을 아주 더 거슬러 올라가서 향가에서 찾고 있다. 즉,

三花矣 岳音：三花의 오름<彗星歌>

최범훈(1980:18)은 ‘오름’이 동사 ‘오르다’의 명사형에서 비롯한 명칭으로 보고 다음의 몽고어의 예들과 계통론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oroi：上頭·頂上 ula：山

28) 강수현(1996), 「제주지역의 오름」, P.92

29) 강승삼(1987) “제주도 지형 연구의 과거, 현재와 전망”, 제주도 연구 제4집

필자는 몽골어의 계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주시의 ‘오라, 아라’ 등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지금의 ‘오라, 아라’ 일대는 제주 성안에서 보면 高地帶, 산간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

[산(山)] 금산(사람 출입을 금했던 산, 제주시 삼양동)

산방산(남군 안덕 화순)

단산(簾山, 바굼지오름, 남군 대정읍)

송악산(남군 대정읍)

[봉(峰)] 모슬봉(남군 대정읍 상·하모)

삼각봉(삼각추 모양의 바위 벼랑에서 유래, 제주시 아라동)

방일봉(訪日峰, 해맞이 동산, 제주시 노형동)

식산봉(食山峰, 봉우리를 날가리로 위장해서 왜구를 물리친 데서 유래, 남군 성산읍 오조리)

[악(岳)] 우부악(서귀포시 색달동)

궁대악(弓帶岳, 활궁자 모양의 띠가 있는 산, 남군 성산읍 수산리)

제주도에는 산이 한라산밖에 없다는 기록도 있으나³⁰⁾, 한라산 외에도 ‘-산’이란 명칭이 많이 산재하며, 특히 대정읍 지역에 많은 편이다.

이러한 제주 오름의 명칭이 지형과 지질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통용되어 혼란을 야기시키고, 이해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산·악·봉·미·장오리] 등을 오름으로 표현하며, 지질학적으로는 분석구·옹회환·옹회구 등으로 표현하고, 또한 그 마을마다 오름의 어원과 유래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³¹⁾ 또한 山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오름들 대부분이 한라산과 같이 독립된 돔(doom) 형태이며, 굽부리(원형, 말굽형, 복합형)가 형성되지 않는 독립된 화산체 형태로 존재하거나 한 개의 굽부리로 형성된 오름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³²⁾

그러나 제주의 오름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름·岳·峰·山 등 명확히 구분하는 원칙이 없다. 오름의 높이가 아주 높은 것을 산이라고 하고, 동산보다 높고 산보다 낮으면 [峰·岳·미·오름] 등으로 표현했다.³³⁾

30) “濟州道에는 山은 漢拏山 하나뿐이요, 이것이 濟州道 中央에 聳立하여 약 200여개의 ‘오름’을 거느리고 있다.”

禹樂基(1980), “國民觀光”, 濟州道

31) 강수현(1996), 「제주지역의 오름」, 大旺社 p.92

32) 강수현(1996), 「제주지역의 오름」, 大旺社 p.92

33) 강수현(1996), 「제주지역의 오름」, 大旺社 p.92

2.11. [丘陵] — — — ㄹ루/ㄹ르/모루/마루/ㄹ를/몰

[ㄹ루/ㄹ르/모루/마루/ㄹ를/몰]

우중ㄹ루(남군 대정읍 하모리)

구남ㄹ루(거주하던 연안 김씨 아들이 9형제라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음,
남군 남원읍 위미리)

맹지ㄹ르(명주처럼 땅 기운이 좋은 등성이, 제주시 삼양동)

상장ㄹ르(上長모르, 제주시 삼양동)

먼ㄹ르(먼 ㄹ르, 길 이름이면서 마을 이름, 제주시 삼양동)

고냉이ㄹ르(고양이처럼 생긴 등성이, 제주시 아라동)

움부리ㄹ르(가운데가 패이어 있음, 제주시 아라동)

ㄹ매ㄹ르(굽(경계) + ㄹ르, 제주시 아라동)

가마귀모루(烏旨里, 남군 남원읍 하례리의 古名)

오로큰마루(큰 오르막길이라는 뜻, 남군 성산읍 신양리)

늑고ㄹ를(鹿高ㄹ를, 사슴 모양의 지형, 비교적 높은 동산, 북군 애월읍 고내리)

노리ㄹ를(늑고ㄹ를에 비해 낮은 동산, 북군 애월읍 고내리)

고로몰(古路村, 지세가 높고 험함, 제주시 이도동)

[ㄹ를]은 ‘ㄹ루, ㄹ르, 머리, 몰, 모루, 마루, ㄹ를’ 등으로 다양하게 실현된다.

[ㄹ를]은 ‘미·매·오름·산·봉·악’보다 높이가 낮은 지형이다. ‘언덕, 고개, 등성이’로 바꿀 수 있는 지명이다.

마을과 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세월이 흐르고 그에 따라 그 지역에서 땅을 이용하여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음을 반영한다.

山の古語로는 일찍부터 [moro, mori, mura, mure] 등으로 와전 되었다.³⁴⁾ ㄹ를(旨)이 ‘ㄹ르’보다 고형인 것은 ‘ㅎ를’이 ‘ㅎㄹ’보다 앞선 것과 같다.

‘몰’型 地名에 관해서 安在鴻은 ‘宗國, 宗主國’을 뜻한다고 보았고,³⁵⁾ 梁柱東은 ‘古歌研究’에서 ‘頭, 上’으로 파악한 바 있다.³⁶⁾

34) 金洪植(1978) “濟州島 地方의 地名에 對하여” 제주대학교 논문집 10집, 제주대학교

35) 金洪植(1978) “濟州島 地方의 地名에 對하여” 제주대학교 논문집 10집, 제주대학교

36) “말·마리’는 ‘頭·首’의 訓, ‘ㄹ르’는 ‘宗(棟·脊梁)’의 訓, ‘마로·마루’는 ‘廳(抹樓)’의 訓이나 모두 ‘頭·上’의 原義인 同源語이다. 現行語에도 ‘마룻소·마룻세름’(最大牛·最高角力)’는 ‘말한(麻立干)’의 ‘말’과 同一한 語義이다.”

梁柱東(1973)은 「古歌研究」 p.72에서

2.12. [溪谷] --- [골새/골챙이·구릉·굴치]

[골새/골챙이] 서**골새**(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남군 남원읍 위미리)

서**녁골챙이**(서귀포시 중문동)

[구릉] 연미**구릉**(연미 마을에 있는 동산, 제주시 오라동)

알**구릉**(제주시 연동)

논**구릉**(일대가 움푹 패인 논, 제주시 연동)

폭낭**구릉**(팽나무가 있는 움푹 팬 지역, 제주시 연동)

셋치**구릉**(셋아들, 곧 둘째 아들이 소유했던 밭. 제주시 연동)

[굴치] 동**굴치**(동쪽에 있는 굴치, 움푹 패이고 가시덤불이 우거짐, 제주시 아라동)

셋**굴치**(서쪽에 있는 굴치, 제주시 아라동)

제주도에는 산이 많다. 섬의 대부분을 한라산이 차지하고 사람 사는 동네는 그 산자락에 빙 둘러 가면서 웅기종기 모여 있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 산, 구릉, 수풀이 많고, 화산 지형으로 인하여 돌이 많다. 돌이라 해도 경사가 지고 바위가 많아 척박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자연 환경으로 인하여 그에 관한 지명어도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골새]는 ‘골짜기’를 의미한다. ‘골생이, 골챙이’ 등으로 실현된다.

[구릉]은 溝, 壑, 움푹 팬 곳으로 밭을 뜻하기도 하고 특히 물이 고이거나 솟는 지역을 의미한다. ‘굴형, 구렁’ 등으로 실현된다.

[굴치]는 움푹 패인 데를 가리키나 특히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을 뜻한다.

2.13. [穴□] --- [굼부리·콰/흙]

[굼부리] **굼부리**(바다의 磯, 오름의 못, 제주시 이호동)

산**굼부리**(북제주군)

[콰/흙] 오로**콰**(두더지가 많은 지경, 제주시 화북동)

오로**콰이**(오로+흙+이, 제주시 이호)

미내기**흙**(미나리가 많은 흙, 제주시 용강동)

은물**흙**(물이 잘 괴는 흙, 제주시 아라동)

베락**흙**(벼락이 떨어져 흙이 생김, 제주시 월평동)

제환지**흙**(바랭이가 많고 물이 잘 괴는 곳, 제주시 월평동)

덤박곳**흙**(동백나무가 많은 흙, 제주시 도두동)

양안리**흙**(두 언덕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 곳, 남군 안덕면 창천리)

[굼부리]는 산 중턱이나 꼭대기에 우묵하게 패인 곳을 의미한다. ‘굼부리’는 원래 바다의 지명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즉, 바다 속이나 바닷가의 움푹 패인 바위를 뜻하는 것이다. ‘굼(穴)+불(火)+이’로 볼 수 있다. ‘굼=穴’이 확실하나, ‘부리’에 대한 해석은 ‘부리(入口), 佛+이, 불(火)+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부리’가 ‘入口’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한다.

[콤/흙]은 ‘물이 잘 괴는 곳’, ‘굴형지’, ‘구멍, 움푹 팬 발’을 뜻한다.

2.14. [平野] — — — 드르/드레·벵딕/병딕

[드르/드레·벵딕/병딕]

[드르/드레] 삼양드르(삼의양 오름 북쪽 들판, 제주시 아라동)

사랏드르(沙羅+드르, 제주시 건입동)

정드르(射亭드르, 제주시 용담동)

알드르(아래 쪽 평지, 남군 대정 상·하모리)

난드르(大平, 바닷가까지 널리 나간 들, 남군 안덕면 대평리)

한드르(넓은 들, 남군 표선면 표선리)

큰드레(큰 들판, 제주시 오라동)

[벵딕/병딕] 벵딕(제주시 삼양동)

고동장벵딕(高洞長+벵딕, 제주시 도련동)

종전벵딕(宗田, 제주시 도련동)

셋병딕(풀과 관목들이 펼쳐진 벌판, 남군 남원읍 위미리)

[드르]는 ‘들판’, ‘평지’를 의미한다. ‘드레’로 실현되기도 한다.

[벵딕, 벵뒤, 벵디] 등으로 실현되는 [벵딕]은 ‘평평하고 넓따란 벌판’을 가리킨다.

김홍식(1978)은 ‘드르’型 地名은 Tungus系 語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았다. 즉, 蒙古語 [tala] (野原)와 滿洲語[taoli] (荒蕪地)에서 출발하여 百濟의 지명[馬等良=마드르=南野]를 거쳐 日本 地名 等に 널리 分布되었음을 立證하고 있다.³⁷⁾ ‘드르’란 표현이 중세 국어에서도 쓰인 예가 있다. 드르는 音借로는 達로, 釋借로

37) 金洪植(1978) “濟州島 地方의 地名에 對하여” 제주대학교 논문집 10집, 제주대학교.

는 坪, 月, 橋로 定着되어 있다.³⁸⁾

드르헤(野中) <용비어천가 9>

드르평(坪) <훈몽자회>

2.15. [樹林] — — — [곶·술/수울/숲·케/캐]

[곶] 기상곶(남군 대정읍 하모리)

뒷곶(禁山 뒤쪽에 위치한 숲, 제주시 화북동)

도랑곶(月郎+곶, 제주시 노형동)

도롱곶(도랑이 있던 곶, 남군 대정 하모리)

[술/수울/숲] 뒷술(뒷쪽에 있는 숲, 제주시 봉개동)

가막술(지형이 까마귀처럼 생겼음, 제주시 아라동)

귀남술(자귀나무가 우거진 숲, 남군 남원읍 수망리)

울미나미술(울면서 집을 철거한 데서 유래했다고 함, 남군 성산읍 고성리)

능술(陵+술, 제주시 월평동)

역적수울(역적들이 숨어 살았던 숲, 제주시 봉개동)

무적다리기숲(숲이 적적하고 무섭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함, 남군 남원읍 신흥리)

[케/캐] 서케(제주시 도련동)

동케(제주시 도련동)

성제동산케(형제동산케, 가시덤불, 돌무더기, 숲 등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지경, 제주시 영평동)

멜케(멸치를 많이 잡았다는 바닷가, 남군 대정 하모리)

돌무덤케(죽은 말들을 묻은 곳, 남군 대정 신도리)

질난캐왓(길이 난 밭, 제주시 오라동)

[곶(고지)]은 숲과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을 가리킨다. 金淨의 <風土錄>에 ‘以藪爲高之’, 金相憲의 <南槎錄>에 ‘以藪爲花’ 등으로 보아 藪=고지=花로 추측할 수 있다.

[술, 수리, 수울, 숲] 등은 숲(藪)을 의미한다. [술]은 ‘높은 곳’을 뜻하기도

38) 崔範勳(1983) “제주도 특수 지명에 대하여”, 한국어 계통론, 집문당

한다.³⁹⁾ 여기서 ‘높은 곳’은 ‘신성한 곳’, ‘범인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숲]은 숭배의 대상이었다. 고대 신화의 여러 주인공들이 [숲]에서 탄생하였고, ‘성황당’으로 대표되는 민간 신앙의 숭배지도 또한 [숲]이었다.

[케/캐]는 가시덤불과 돌무더기, 숲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곳을 뜻한다. 잡목과 잡풀들이 우거진 넓은 들판을 가리키기도 한다. ‘멜캐’에서 보듯이 바다 지경을 가리키기도 한다.

2.16. [石磑] — 머물/머홀/머체/머채/머치/머들/모들/머생이·서들/설덕/수덕

[머울/머홀/머체/머채/머치/머들/모들/머생이·서들/설덕/수덕]

[머울/머홀/머체/머채/머치/머들/모들/머생이]

귀머울(가시덤불과 바위 등이 있음, 제주시 도련동)

홀근머울(큰 바위 덩어리들이 모인 곳, 서귀포시 색달동)

너른머홀(넓은 바닥에 바위가 깔려 있는 바다밭, 서귀포시 강정동)

머체(제주시 삼양동)

ㄱ레머채(맷돌처럼 생긴 돌무더기와 가시덤불이 많은 지역, 제주시 화북동)

자구남머치(자귀나무가 많은 머채, 제주시 회천동)

상감머치(꼭대기에 있는 돌무더기 동산, 남군 남원읍 위미리)

새새미머채(새+泉+머채, 제주시 아라동)

장머들(긴 머들, 제주시 화북동)

가마귀머들(제주시 건입동)

놀안머들(기러기가 나는 모양의 동산, 남군 남원 남원리)

오갱이모들(까마귀 머리 모양이고, 까마귀들이 집단으로 뭉쳐서 먹을 것을 찾는 곳, 남군 성산읍 성산리)

머생이(돌이 많은 밭, 서귀포시 강정동)

[서들/설덕/수덕]

도채비서들(도깨비가 나올 만큼 으스스한 수림지대, 제주시 도남동)

39) “마치 ‘봉(峰)’乃至 ‘한봉(天)’이 山名에 흔히 慣用되듯이 ‘수·술(소·술)’도 山名에 慣用되었다. ‘峰’의 古訓 ‘술·수리’는 元來 ‘수’와 關聯이 있는 듯하다.”
梁柱東(1989), 「古歌研究」-潮閣, p.11

곳인**설덕**(바위 돌들이 험하게 얹어 있는 가시덤불, 남군 대정 신평리)
 ㄴ래**머들수덕**(멧돌을 만들던 수림지대, 남군 대정 무릉리)
 돛박**낭수덕**(동백나무가 우거진 수덕, 제주시 회천동)
수덕(제주시 노형동)

[머들]은 ‘머들, 머새, 머치, 머채, 모들, 머생이, 모들’ 등으로 실현(實現)되는 ‘머들’은 ‘돌무더기, 가시덤불’과 관계가 있다. 한자로는 ‘磊’이며, ‘돌무더기’가 있고 잡초가 우거진 밭이나 들판’을 가리킨다. ‘머홀’은 크고 작은 돌맹이가 쌓인 곳을 의미한다. 고어(古語)에 ‘머흐다=험하다’와 무관하지 않다. ‘머홀왓’은 ‘척박한 땅’을 의미한다. 송하진(1987)은 머홀이 동사 어간에 파생 접미사 ‘을’이 결합되어 생성된 명사라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⁴⁰⁾

[수덕, 서덕, 서들, 설덕, 서드럭] 등은 숲을 뜻하지만 특히 돌이 많은 땅을 의미한다.

2.17. [巖盤] — — ㄱ/괴/괘/귀/기·덕·빌레·돌

[ㄱ/괴/괘/귀/기·덕·빌레·돌]

[ㄱ/괴/괘/귀/기]

서낭**괘**(성황당 굴이 있던 곳, 제주시 오등동)
 돛봉**괘**(천연동굴, 남군 성산읍 신산리)
 들렁**괘**(머리를 쳐든 듯한 돌, 서귀포시 색달동)
 다람쥐**괘**(다람쥐가 많이 살았던 바위굴, 서귀포시 중문동)
 문**덕괴**(열고 닫을 수 있는 돌문이 있는 지역, 남군 안덕면 상천리)
 농**괘**(장농 뚜껑처럼 생긴 네모진 바위가 있는 곳, 남군 안덕면 대평리)
 들렁**귀**(들+엥+귀, ㄱ로 위가 가리워지고 **땅** 속으로 깊숙히 패이어 들어간 굴, 제주시 오등동)
 곱은**기**(隱·曲+ㄱ, 제주시 도평동)
 [덕] 괴기**난덕**(중문)
 옷**덕**(오리 새끼들이 휴식처로 이용했던 곳, 남군 성산읍 성산리)
 통**덕**(연안에 독립되어 있는 돌섬, 남군 성산읍 성산리)

40) 宋河振(1987) “제주도 고유 지명 보편소에 대하여” 국어국문학논총, 삼영사

생팡이덕(생팡이는 새끼 소라, 주변보다 조금 높은 지형, 서귀포시 강정동)
눌덕(난가리 모양의 덕, 서귀포시 강정동)

[빌레] 논빌레(논밭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옴, 제주시 삼양동)

넙생이빌레(너럭바위가 있는 빌레, 제주시 삼양동)

취빌레(취처럼 생긴 너럭바위가 있음, 제주시 아라동)

돛(돌)손빌레(돼지가 화살 맞아 죽은 바위, 남군 대정 구억리)

납작빌레(납작한 암반지대, 남군 남원읍 위미리)

넙빌레(넓고 평평한 암반, 남군 남원읍 신례리)

[돌] 들은돌(擧石洞, 제주시 삼양동)

애기엷은돌(제주시 화북동)

네나는돌(권 물이 햇별을 받아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돌, 제주시 영평동)

매안진돌(매가 자주 앉은 돌, 남군 대정 상모리)

너븐돌(넓은 돌, 남군 남원읍 신례리<공천포>)

살맞은돌(화살 박힌 돌, 북군 애월읍 고성리)

제주도 토양에는 ‘돌’이 많다. 이는 화산 지형의 영향으로 여겨지는데, ‘모살·돌·송이·바우·엷·빌레’ 등 ‘돌’을 뜻하는 지명어들이 많다.

[궤]는 바위 굴을 뜻한다. ‘괴, 궐, 궤, 귀’ 등으로도 실현(實現)되며, 한자어 괴(塊)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특히 ‘곶은기’의 [기]는 ‘城’을 의미하며, 일본 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

[덕]은 ‘바위(돌)’를 뜻한다. 또한 ‘덕’은 ‘높은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체의 어깨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독지’라는 말이 있고, 제주도를 가리키는 말 ‘毛羅’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빌레]는 ‘넓고 평평한 바위, 너럭바위’를 뜻한다. 드물게는 ‘돌밭’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양주동(1980:353)은 ‘崖’의 고어가 ‘벼락’, ‘비레’임을 밝히고 있다. ‘빌(별)’은 물가의 벼랑이나 돌길을 뜻한다고 하였다.

[돌]이 지명어로 쓰이는 현상을 제주도에서는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돌’의 형상에 따라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돌’에 얽힌 설화에 따라 이름이 지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만을 가리키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 地形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2.18. [暗礁] — — — 여

- [여] 목조른여(바위섬의 목이 물에 잠김, 남군 대정 영락리)
 큰홍합여(홍합이 많이 나는 여, 남군 대정 신도리)
 안여(案磯, 남군 남원 남원리)
 조진여(밀집한 여, 남군 남원읍 신례리)
 발벌는여(발을 뻗은 것 같은 암반 모양, 남군 남원읍 신례리)
 감태여(감태가 많이 나는 여, 남군 성산읍 선양리)
 새여(새로 찾은 여, 서귀포시 강정동)
 고장여(꽃처럼 생긴 여, 서귀포시 강정동)
 짝여(평평한 곳에 오목하게 박힌 여, 서귀포시 강정동)
 불미여(파도 소리가 대장간 풀무 소리처럼 들리는 여, 북군 애월읍 신엄리)

[여/磯]는 ‘물 가운데 바위’를 의미한다. 이어도의 ‘여’도 ‘磯’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어도’라고 씀은 잘못이다. 제주 바다 또는 해안에는 ‘여’가 붙는 명칭이 많다.

고광민·강정식(1996)⁴¹⁾은 “곶바다 발 중에 바위를 ‘여’”라 하고 그 종류를 “방향, 상태, 주산물, 역사, 사람이름, 조류, 모양, 바람, 가늌” 등등에 따라 10종류로 나누었다. 바위가 많은 제주 해안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명어라고 할 수 있다.

2.19. [沿岸] — — — 코지/곶대기·영·모살

[코지/곶대기·영·모살]

- [코지/곶대기] 돌코지(돌이 뾰죽하게 튀어나온 발 이름, 제주시 도련동)
 보섭코지(보습처럼 생긴 코지, 제주시 화북동)
 볼락코지(볼락이란 고기가 많이 잡힌 곳, 남군 대정 가파리)
 코지(사람 코처럼 뾰죽히 나온 바닷가, 남군 성산읍 신천리)
 흰모살코지(흰 모래가 있는 해안가 바위, 남군 남원읍 위미리)
 상투코지(상투를 튼 모양의 돌이 있는 해안, 남군 성산읍 성산리)

41) 고광민·강정식(1996) “바다발 이름”, 『濟州市 옛地名』, 제주시, 세림원색인쇄사 pp.489~490

돈내코(서귀포시 영천동)

돈내코(豚川通, 북군 애월읍 광령리)

새섬콧대기(억새 풀 밭, 지형이 콧대처럼 오뚝함, 제주시 건입동)

[엥] 돛굽는엥(돼지를 잡았던 굴, 제주시 용강)

큰엥(기암절벽과 자연 동굴이 있는 언덕, 남군 남원 남원리)

[모살] 너른모살(모래가 넓게 쌓인 곳, 남군 성산읍 성산리)

진모살(긴 모래밭, 남군 성산읍 오조리)

조른모살(짧은 모래, 서귀포시 색달동)

[코지]는 바닷가의 ‘뽕죽하게 나간 끝’을 의미한다. ‘串’이 2음절로 바뀌면서 앞 음절이 거센소리로 변했다. 김홍식(1978)은 특 튀어나온 돌출부를 나타내는 것이 인간의 ‘코’와 관계가 있다고 논증한 바 있다.

‘돌코지’처럼 바닷가 아닌 ‘땅’을 의미하기도 한다. ‘돈내코’처럼 ‘코’는 ‘입구(入口)’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엥]은 ‘바닷가 절벽, 낭떠러지’를 뜻한다. ‘바위굴’을 가리키기도 하며, 현대어의 ‘언덕’과 무관하지 않다.

[모살]이 지명 의미소로 쓰이는 경우를 제주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모래의 색깔보다는 모래의 양에 따라 지명을 구별해서 나타내는 지명어가 많다. 즉 ‘모래’가 많으면 ‘진모살, 너른모살’이라 하고 양이 적으면 ‘조른 모살’이라 한다.

2.20. [바다(海)] — — 바르/바당

[바르·개·원]

[바르/바당] 앞바르(서귀포시 중문동)

넛바르(소라가 많은 해변, 남군 남원읍 신흥리)

선바르(만조시 바위를 밟아서 건너는 바다, 남군 성산읍 성산리)

섯바르(서쪽 바닷가, 서귀포시 색달동)

지름바당(油海, 제주시 건입동)

[바르, 바당]은 ‘바다’를 뜻한다.

古代地名 波珍(바돌)에까지 溯及되는 바다는 15世紀語에 ‘바돌’과 ‘바를’ 두 語形이 共存한다.⁴²⁾ 발음 편의상 변화 형태인 ‘바르’가 통용되고 있으며, ‘바당’은

42) 崔範勳(1983) “제주도 특수 지명에 대하여”, 한국어 계통론, 집문당

제주도 방언에 두드러진 ‘-ㅇ’ 말음(末音)의 영향으로 빚어진 현상이다.

2.21. [浦口] --- 개/갯·원

[개/갯] 가물개(마을 이름, 검은 모래가 있는 바닷가, 제주시 삼양·이호동)

풀개(빨이 있는 주변 마을, 筏浦, 남군 남원읍 태흥리)

봉안이개(새의 눈처럼 생긴 포구, 남군 남원읍 태흥리)

조랑개(목이 좁은 포구, 남군 남원읍 위미리)

태우개(통나무배를 매어 두던 바닷가, 남군 남원읍 위미리)

보말개(보말이라는 해산물 같은 지형, 남군 남원읍 신흥리)

자갈갯(자갈이 많이 쌓인 해안, 남군 성산읍 성산리)

모살갯(모래가 많은 해안, 남군 성산읍 성산리)

[원] 통시원(북군 애월읍 하귀리)

앞원(북군 애월읍 하귀리)

가린여원(북군 애월읍 하귀리)

죽든원(죽은 상어의 일종, 북군 애월읍 애월리)

[개]는 흔히 ‘포(浦)’로 대응되는데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쭉 들어온 지형을 의미한다. ‘포구’를 일컫던 지명이 ‘마을 이름’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 것은 다른 지명어에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원]은 ‘바닷가의 코지와 코지 사이에 멸치 등을 잡기 위해 쌓은 돌담’을 의미한다. “들물 때 원담을 쌓아 두면 썰물 때 빠져 나가지 못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기 잡는 수단으로 지형을 이용하였다.

2.22. [方位] --- 알·뒤·작/곶/곶·밋·안

[알·뒤·작/곶/곶·밋·안]

[알] 성알(禾北城 아래, 제주시 화북동)

폭낭알(팽나무 아래, 제주시 도남동)

도구리알(도구리 비슷한 바위가 있는 포구, 남군 대정 신도리)

아이무덤알(아이 무덤이 많이 있던 아래, 남군 성산읍 성산리)

용당알(용이 승천할 때 치인 곳, 남군 성산읍 성산리)

통발알(비가 많이 오면 논밭과 같이 형성되는 곳, 남군 성산읍 성산리)

고개죽은알(고래가 죽은 바닷가 아래, 남군 성산읍 신양리)

[뒤] 망뒤(망오름 뒷쪽, 남군 표선면 토산리)

[각/끗/ㄹ] 산물깁(生水가 나는 가장자리, 제주시 월평동)

내깁(세기내가 바다와 만나는 일대, 즉 내가 끝나는 지점, 남군 남원읍 신례리<공천포>)

버랭이깁(벌랑개, 벌랑포, 제주시 용담동)

큰넷깁(강정천 하구, 서귀포시 강정동)

개깁(중문)

고느리깁(중문)

새나끗(새(新)+나(川)+끗(끝), 제주시 일도동)

한질ㄹ(제주시 도남동)

[밋] 연디밋(煙臺下, 제주시 화북동)

[안] 진올래안(마을 이름, 긴 올래(진입로) 안, 제주시 오라동)

토성안(토성을 쌓았던 흔적이 남아 있는 안쪽, 남군 성산읍 성산리)

[알·뒤·각·밋·안] 등 방위를 나타내는 말이 지명어로 쓰이기도 한다.

[알]은 ‘아래, 밑’을 뜻한다.

[뒤]는 古語에서 [北]을 의미한다. 다음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東良北 동량뒤<용가 4>

북천동 뒷섬솔<용가 10>

뒤북(北)<訓蒙字會 中 4>

濟州市의 禾北에 위치한 ‘별도(別刀)’는 ‘벼뒤(禾北)>별뒤>별두>별도’의 轉變을 보게 된다.⁴³⁾ [각]은 ‘가장자리, 끝’을 의미한다. ‘꼴치=각등’이라는 방언이 쓰이는 것으로 봐서 이를 알 수 있다.

[밋]은 ‘아래 지역, 아래 지경’을 의미한다.

[안]은 ‘○○의 안쪽’을 가리킨다.

43) 崔範勳(1980) “濟州島 地名研究”, 경기대학 논문집 8집, 경기대학, p.74

2.23. [入口] --- 도·목/목이

[도·목/목이]

[도] 붉은도(흙 색깔이 붉은 지경, 제주시 삼양동)

너른도(넓은 출입구, 제주시 봉개동)

곰배물도(곰방메처럼 생긴 못 출입구, 제주시 아라동)

괘도(굴의 출입구, 괘는 위가 바위이고 아래는·깊이 패인 곳, 제주시 월평동)

고지내또(高地川+도, 제주시 오라동)

돈내코도(廻+川+코(앞으로 나온 부분+도(통로, 어귀), 제주시 해안동)

직사먹는물도(直숨점마소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하던 물이 있는 입구, 남군
남원읍 하례리)

[목/목이] 물잡은목(남군 대정읍 상모리)

드신목(따스한 목, 제주시 화북동)

안목(속에 있는 목, 제주시 아라동)

알목(아래로 내려 가는 목, 제주시 용담동)

살책이목(우마를 방목할 때 출입구에 설치한 정낭이 있던 자리, 남군 대정
읍 상모리)

태갯목(태우를 매어두는 곳, 남군 대정읍 일과리)

개목(개의 목처럼 가는 목, 남군 성산읍 성산리)

터진목(조수에 의하여 입구가 막히고 터지는 자연 수문이 있던 곳, 남군 성
산읍 성산리)

진밭목이(긴 밭의 입구, 남군 대정읍 신도리)

[도]는 ‘입구, 길’을 뜻한다. ‘넷도’는 ‘넷가’를 의미한다.

三國史記(卷44)에 ‘旃檀梁 城門名 加羅語謂門爲梁云’으로 볼 때, ‘梁=門=도’
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日本語에 [to]는 ‘戸·門’을 의미한다.

[목]은 ‘중요한 통로’를 의미한다.

2.24. [橋梁] --- 다리

[다리]

메누리다리(며느리가 물을 건너다 빠져 죽은 다리, 남군 성산읍 오조리)

조순다리(절벽을 쪼아 만든 지름길, 남군 안덕면 대평리)

한넛다리(漢川橋, 大川橋, 제주시 오라동)

[다리]는 ‘다리(橋)’로 실현된다. ‘다리’로 발음하는 경향도 있으나 제주도 방언에서 [다리]와 [다리]는 엄격히 구분되어 쓰인다. [다리]는 ‘橋梁’을 뜻하고, [다리]는 ‘脚’를 가리킨다. ‘-다리’가 접미사로 쓰이는 경우는 그 뜻이 다르다. ‘병신다리’, ‘광질다리’에서와 같이 ‘-다리’는 ‘-하는 사람’이라는 卑下의 뜻이 포함된다.

2.25. 其他———놀·돈지·막·자리·팡·홀

[놀] 어우놀(어은동, 제주시 오라동)

모시놀(제주시 오라동)

[놀]은 ‘마을 이름’으로 쓰이는데 어원(語源)은 ‘누리’로 여겨진다.

[돈지] 돈지(군사 주돈지, 북군 애월읍 동하동)

툰돈지(다른 돈지, 돈지=海神堂이 있는 곳, 서귀포시 강정동)

[돈지]는 ‘屯地’를 뜻한다.

[막] 소금막(소금을 제조했던 곳, 남군 성산읍 오조리)

짐수막(金須 장군이 진을 쳤던 곳, 남군 성산읍 오조리)

[막]은 ‘천막(天幕)’을 뜻한다. 그러니까 ‘소금막’, ‘짐수막’은 ‘천막을 쳤던 자리’를 가리킨다.

[자리] 관선자리(관에 납품하는 물건을 배가 정박하던 자리, 남군 남원읍 태흥리)

가막자리(목장 관리하는 데 장막 쳤던 곳, 남군 성산읍 수산리)

[자리]는 ‘장소(場所)’를 의미한다. 바다와 육지 구별없이 쓰인다.

[팡] 넓은팡(넓은 섬 돌, 제주시 삼양동)

너븐팡(평평한 巖盤, 북군 애월읍 고내리)

[팡]은 ‘짐을 내려 놓는 곳’, ‘쉬는 곳’의 의미를 지닌다.

[홀] 먼홀(오래 전에 마을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 남군 표선면 표선리)

와홀(북제주군 조천읍)

선홀(북제주군 조천읍)

대홀(북제주군 조천읍)

[홀/屹]은 ‘마을’을 뜻한다. ‘-忽’은 ‘-골’의 前次形임은 周知의 사실이고 ‘-忽’型은 고구려 계통, 즉 北方系 地名이라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백제에는 夫里, 신라에는 火(伐) 등이, 많이 쓰였음은 앞선 연구 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와 같다. ‘홀’은 원래 고유어인데 漢字 表記化하면서 ‘屹’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III. 결 론

이상에서 제주도 지명어의 어휘 형태 구조를 분석·고찰하고, 의미소 (lexeme) 를 설정하여 제주 지명어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살핀 것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제주도의 지명어를 단어 형태면에서는,

1) 제주도의 지명어는 형태·의미면에서 볼 때 ‘이중 구조’를 지니고 있다. 앞선 연구들에서는 ‘수식 요소+근간 요소’, ‘수식+피수식’, ‘지명 한정소+지명 보편소’ 등으로 기술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의미론적’ 접근이므로 이러한 선행연구자들의 용어보다 [의미소]라는 개별적 용어를 선택하여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2) 단어의 형태 구조는 크게 단일형, 파생형, 합성형, 혼합형의 네 종류로 나누고, 이들을 작게는 단일형 (1), 파생형 (4), 합성형 (11), 혼합형 (6) 등 2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파생형은 ① aR형 ② Ra형, ③ aRa형, ④ aa형

※ a=affix, R=Root

합성형은 ① R1R2(대등) <(N+N)+(N+N)>

예) 밧고랑논고랑

② R1R2(종속) <N+N>

예) 산우장

활오름

<As+N>

예) 너븐내

너븐돌

<Vs+N>

예) 조순드리

들은돌

③ R1R2-R3(종속) <(N+Vs)+N>

예) 쇠떨어지는구멍

<(N+N)+N>

예) 절물오름
 꼴머리오름

< (N+As) +N >

예) 흙붉은오름
 남짓은오름

< (As+N) +N >

예) 큰내골
 돈물통

< (Vs+N) +N >

예) 걸시오름
 산세미오름

< { (Vs+N) +N } +N >

예) 돈내כות도

< { (N+Vs) +N } +N >

예) 직사먹는물도

*R=root, N=noun, Vs=verb stem, As=adjective stem

혼합형은 ①aR1R2, ②R1R2a, ③f1a1R2a2, ④R1a1R2R3, ⑤R1R2aR3, ⑥R1aR2

3) 단일 형태의 지명어가 적다는 것은 생활 공간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4) 제주도 지명어의 대다수는 합성형과 파생형이다.

둘째, 제주도 지명어를 의미면에서는,

1) ‘-도’, ‘-개’, ‘-코지’ 등을 <접미사>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일 형태나 단어의 어근 구실을 하는 예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예를 발견할 수 없는 [의미소]들도 한자어에 밀리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래는 자립형태로 쓰였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2) 동일한 형태의 [의미소]를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좁은 지역이지만 왕래가 적었고, 생활의 형태가 어촌형, 농촌형, 도시형 등으로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3) [河川]에 관한 [의미소]가 적고 [田地], [山岳], [林野], [巖盤]에 관한 의미소가 많은 것은 ‘화산 지형’이라는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陸上과 海上을 동일한 형태의 [의미소]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농·어 촌

을 같은 생활 공간으로 여기고 사는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밭]이 바다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 [굼부리]는 산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다.

셋째, 어휘면에서는, 1) 同一 地名이 꽤 많다.

예) 굴왓, 동카름, 모살왓, 사장밭 등

2) 音讀, 訓讀, 音讀+訓讀 등의 고대어적 요소의 어휘가 많다.

예) 다끄내, 다라쿿, 드라미

3) 몽골어, 일본어, 만주어 등의 차용 어휘가 많다.

예) 오라, 오름, 도, 가름, 골(굴)

제주도 지명어는 자연적 변화와 인위적인 변형, 그리고 다른 언어와의 교류·접촉에 따른 변형 등의 변화 과정을 겪었다. 그런 과정에서 고유어식 지명이 한자어 지명어로 많이 대체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축적된 많은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도 지역민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思考)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착안하면서, 제주도 지명어의 형태와 의미/[의미소]를 고찰해 보았다. 이 논문은 제주도 지명어의 어휘 형태 구조를 분석·고찰하고 의미소(lexeme)를 설정하여 [의미소]별로 묶어 제주 지명어의 의미를 밝히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한편, 이 논문은 제주도 방언 연구와 국어의 통시적 연구에도 기여함이 있으리라 믿는다.

참고 문헌

〈資料〉

- 강대원 (1979), 「구좌면지」, 한일인쇄사
강정마을회 (1996), 「강정향토지」, 도서출판 서울문화
金尙憲 (1601), 「南槎錄」
南廣祐 (1960), 古語辭典, 一潮閣
남제주군 (1996), 「남제주군고유지명」, 경신인쇄사
朴用厚 (1992),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 (1988), 「濟州道 方言 研究」, 成東文化社
불란지야불싸지라「중문향토지」(1996), 도서출판 유경문화인쇄사
색달동장 (1996), 「색달마을지」, 내내로 전자출판
西歸浦市 (1987), 「西歸浦市誌」
신효마을회 (1996), 「신효마을」, 대동원색인쇄사
애월읍지편찬추진위원회 (1997), 「邑誌」, 선진인쇄사
오성찬 (1992), 「제주도 토속 지명 사전」, 민음사
오창명 (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李元鎮 (1653), 「耽羅志」
제주시·제주문화원 (1996), 「제주시 옛 지명」, 세림원색인쇄사,
홍로 향토지발간편집위원회 (1996), 「서홍로」, 보광인쇄사
玄平孝 (1985), 「제주도 방언연구 자료편」, 이우출판사

〈論文〉

- 姜根保 (1972), “濟州島 方言 語彙考”, 국문학보 제7집,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강영봉 (1982), “濟州島 方言에 있어서의 意味統合의 한 類型”, <北泉沈汝澤先生
回甲紀念論叢> 同刊行委員會
—— (1989), “耽羅語 研究古代 日本語와의 比較”,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2집 (인
문·사회과학편)
康貞姬 (1984), “제주방언의 명사류 접미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 (1982), “濟州島方言의 接尾辭 考”, 耽羅文化
奇周衍 (1991), “근대국어의 파생어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공철(1965), “濟州方言의 語彙論的 研究”, 국어국문학(28집), 국어국문학회
 --- (1988), “方言의 語彙”, <方言學>, 南陽文化社
- 金榮振(1967), “國語方言研究의 史的 考察”, 청주대학논문집 6집, 청주대학
- 金洪植(1978), “濟州島 地方의 地名에 對하여”, 제주대학교 논문집 10집, 제주대학교
 --- (1985), “濟州島 地方의 地名語彙考(I)”, 제주대학교 논문집 20집, 제주대학교
 --- (1986), “濟州島 地方의 地名語彙考(II)”, 제주대학교 논문집 22집, 제주대학교
- (1983), “濟州島 方言의 接尾辭考”, [耽羅文化]2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金泰能(1964), “탐라의 호칭에 대한 사고”, <제주도 13호>, 제주도
- 都守熙 “漢字借用表記의 轉訛에 對하여” 한남어문학 제 13집
- 朴用厚(1968), “耽羅 名義考”, <제주도 34호>, 濟州道
- 朴用厚(1964), “鄉歌와 濟州方言”, 「제주도」18호, 제주도
- 서정곤(1993), “국어의 단어 형성 원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송상조(1991),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宋河振(1987), “제주도 고유 지명 보편소에 대하여”, 국어국문학논총, <장태진박사회갑기념>, 삼영사
- 沈汝澤(1972), “濟州島 地名研究”, 제주대학교 논문집 4집, 제주대학교
 --- (1975), “濟州島 地名의 構成”, <國文學報 7집> 제주대학국어국문학회
- 이병효(1988), “晉州地域語의 語彙論的 研究”, 경남대 교육대학원
- 崔圭一(1988), “우리말 [뜻]의 의미 기능”, <국어국문학 100호>, 국어국문학회
 --- (1990), “우리말 말 만들기에 관한 연구(I)”, 도서출판 제주문화
- 崔範勳(1969), “韓國地名學 研究 序說” 국어국문학 제42,43합병호, 국어국문학회
 --- (1980), “濟州島 地名研究”, 경기대학 논문집 8집, 경기대학
 --- (1983), “제주도 특수 지명에 대하여”, 한국어 계통론, 집문당
- 玄平孝(1972), ““耽羅”의 語義에 對하여”, <제주도 53호>, 濟州道
 --- (1990) “地名을 통해서 본 耽羅言語의 源流”, 「제주문화」4호, 방송대제주학생회

<著書>

- 강수현(1996), 「제주의 오름」, 大旺社
金光海(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金亨奎(1974), 「國語史研究」, 一潮閣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沈在箕, 李基用, 李廷玟(1984), 「意味論序說」, 集文堂
양인석(1994), 「어휘 의미론」, <현대 언어학 지금 어디로>, 한신문화사
오창명(1997), 「제주도 마을과 산악 이름의 종합적 연구」, <탐라문화 18집>, 제주대 탐라문화 연구소
李基文(1991),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이철수(1994), 「國語形態論」, 인하대학교 출판부
임지룡(1995),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한글학회(1986), 「한국지명총람16(전남·제주편)」, 평화당인쇄주식회사
玄平孝(1985), 「제주도 방언연구 論考篇」, 이우출판사

<ABSTRACT>

Studies on the [lexeme(의미소)] and word formations of chejudo place-names

Yang, jung-sik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do,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CH'ŎE, KYU-IL

This dissertation strives to examine the [lexeme] and word formations of chejudo place-names. The place-names is very conservative. And then chejudo place-names is valuable materials to study on classical language. Until now there is not the synthetic study on meaning and word formations of chejudo place-names. This dissertation strives to examine the [lexeme] as the contents of chejudo place-names, and word formations as the formality of those.

The studies on word formation of chejudo place-names are as followings;

(1).The structure of chejudo place-names is <dual structure>. I use the [lexeme] word and <principal lexeme + vice-principal lexeme> at this dissertation.

(2).Word formations of chejudo place-names are four : simple, derivative, compound, mixture (derivative+compound)

derivative form ①.aR, ②.Ra, ③aRa, ④.aa

※ a=affix, R=Root

compound①.R1R2(equal form) <(N+N) + (N+N) >

②.R1R2(embellish form) <N+N>

<As+N>

<Vs+N>

③.R1R2-R3(embellish form) <(N+Vs) +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 (N+N) + N >$
 $< (N+As) + N >$
 $< (As+N) + N >$
 $< (Vs+N) + N >$
 $< \{ (Vs+N) + N \} + N >$
 $< \{ (N+Vs) + N \} + N >$

*R=root, N=noun, Vs=verb stem, As=adjective stem

mixture ①aR1R2, ②R1R2a, ③R1a1R2a2, ④R1a1R2R3, ⑤R1R2aR3, ⑥R1aR2

(3). Simple words are little found. Because the life style of chejudo peoples is more complicated and subdivided than past.

(4). The types of forming of chejudo place-names are various. Many of them are compound and derivative forms.

The studies on the [lexeme] of chejudo place-names are as followings;

(1). The word-form of '-do', '-gae', '-koji' is not suffix.

(2). One [lexeme] is used in various forms and meanings at several areas. Because the life style of chejudo peoples is various : fishing village, farm village, city, etc.

(3). The [lexemes] of river are little found. And many [lexemes] of fields, mountains, forests, rocks are found. Because the trait of chejudo land is volcanic area.

(4). Some [lexemes] of sea and land are the same. Many islanders in chejudo think that the two places of sea and land are the same to live.

The vocabulary of chejudo place-names are as followings;

(1). There are the same names to indicate many places.

(2). There are elements of old korean language

(3). There are many vocabulary influenced by Mongolian, and other chinese characters.

<부록 : 제주도 지명어 어휘 목록>

*카름/가름

—동카름(마을 이름, 제주시 삼양동)

물카름(물 가까이에서 형성된 마을 이름, 제주시 삼양동)

영카름(가파른 낭떠러지 밭(동네), 제주시 내도동)

안카름(마을 중심지, 남군 남원읍 위미리)

당카름(堂이 있는 동네, 남군 남원읍 하례리)

빌레가름(암반으로 형성된 지형, 남군 남원읍 한남리)

묵은가름(옛 동네, 남군 남원읍 수망리)

큰가름(큰 동네, 남군 성산읍 시흥리)

*개/갯

—가물개(마을 이름, 검은 모래가 있는 바닷가, 제주시 삼양·이호동)

풀개(빨이 있는 주변 마을, 筏浦, 남군 남원읍 태흥리)

봉안이개(새의 눈처럼 생긴 포구, 남군 남원읍 태흥리)

조랑개(목이 좁은 포구, 남군 남원읍 위미리)

태우개(통나무배를 매어 두던 바닷가, 남군 남원읍 위미리)

보말개(보말이라는 해산물 같은 지형, 남군 남원읍 신흥리)

자갈갯(자갈이 많이 쌓인 해안, 남군 성산읍 성산리)

모살갯(모래가 많은 해안, 남군 성산읍 성산리)

*거리/커리

—비석거리(남군 대정읍 하모리)

득두거리(마을 이름, 듄들이 있는 거리, 제주시 삼양동)

작벽거리(작벽이 있는 거리, 작벽(벽작)은 돌무더기, 제주시 도련동)

첼대거리(촛대에 불을 밝힌 거리, 제주시 삼양동)

수수막거리(巡守幕 거리, 제주시 화북동)

상낭거리(삼나무가 많은 지경 제주시 봉개동)

석은세거리(썩은 세 갈래 길, 제주시 영평동)

등돌거리(등돌 들기 하던 거리, 제주시 용담동)

세커리(식커리, 세 갈래 길, 제주시 노형동)

태역발거리(자연 잔디가 넓게 깔려 있었음, 남군 대정 일파리)

*걸(돌이나 바위로 이루어진 바다 밭)

—너른걸(돌이나 바위 등이 넓게 펼쳐진 바다, 서귀포시 강정동)

*골

—논짓골(남군 대정읍 상모리)

차목골(차목굴, 밭을 오가며 잠시 쉬는 곳, 제주시 삼양동)

막은골(외적이 침범하는 데 용이치 못한 지역, 塞達, 서귀포시 색달동)

정동골(댕댕이 덩굴이 많은 곳, 제주시 도련동)

항골(항아리처럼 패인 지역, 제주시 도련동)

해짓골(海池洞, 海底洞, 제주시 일도동)

송애기골(송아지 같은 지형, 남군 남원읍 위미리)

근내골(細川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 남군 남원읍 위미리)

논골(沓洞, 북군 애월읍 고내리)

넛골(내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네, 북군 애월읍 고내리)

*골목

—안골목(긴 안쪽 골목, 제주시 삼양동)

당침골목(堂이 있던 골목, 제주시 화북동)

*골챙이·골새

—서녀골챙이(서귀포시 중문동)

서골새(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남군 남원읍 위미리)

*곳(꽃과 수풀이 있는 곳)

—기상곳(남군 대정읍 하모리)

뒷곳(禁山 뒤쪽에 위치한 숲, 제주시 화북동)

도랑곳(月郎+곳, 제주시 노형동)

도롱곳(도랑이 있던 곳, 남군 대정 하모리)

*구릉(동산, 언덕, 溝, 壑, 움푹 팬 곳으로 물이 고이거나 솟는 지역, 밭)

—구릉(제주시 아라동)

연미구릉(연미 마을에 있는 동산, 제주시 오라동)

알구룽(제주시 연동)

논구룽(일대가 움푹 패인 논, 제주시 연동)

폭낭구룽(팽나무가 있는 움푹 팬 지역, 제주시 연동)

셋치구룽(셋아들, 곧 둘째 아들이 소유했던 밭. 제주시 연동)

*구석

－개다리－구석(송악산 절벽 밑 얕은 바닷가, 남군 대정읍 상모리)

삼밭구석(삼 재배에 적당한 토질을 가진 지역, 남군 안덕면 동광리)

*굴(굴짜기와 같이 깊이 팬 곳)·굴렁·굴랭이

－염소굴(남군 대정읍 상모리)

선둑굴(선돌(立石)이 있는 지역, 제주시 삼양동)

밤낭굴(栗木洞, 제주시 도련동)

강전이굴(康田, 곧 康氏 소유의 밭이 있던 지역, 제주시 도련동)

석굴(石窟, 제주시 봉개동)

*궂(가장자리)

－한질궂(제주시 도남동)

*구멍

－개썸구멍(제주시 용담동)

*굴치(움푹 패인 데,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

－동굴치(동쪽에 있는 굴치, 제주시 아라동)

섯굴치(서쪽에 있는 굴치, 제주시 아라동)

*굼부리(산 중턱이나 꼭대기에 우뚝하게 패인 곳)·옴부리

－굼부리(바다의 磯, 오름의 못, 제주시 이호동)

*괘(바위 굴)/괴/괘/귀/기

－서낭당괘(성황당 굴이 있던 곳, 제주시 오등동)

돔봉괘(천연동굴, 남군 성산읍 신산리)

문덕괴(열고 닫을 수 있는 돌문이 있는 지역, 남군 안덕면 상천리)
 농괘(장농 뚜껑처럼 생긴 네모진 바위가 있는 곳, 남군 안덕면 대평리)
 들렁괘(머리를 쳐든 듯한 돌, 서귀포시 색달동)
 다람쥐괘(다람쥐가 많이 살았던 바위굴, 서귀포시 중문동)
 들렁귀(들+엇+귀, 제주시 오등동)
 곱은기(隱·曲+괘, 제주시 도평동)

*각(가장자리, 끝)

—산물각(生水가 나는 가장자리, 제주시 월평동)
 내각(세기내가 바다와 만나는 일대, 즉 내가 끝나는 지점, 남군 남원읍 신례리
 <공천포>)
 버랭이각(벌랑개, 벌랑포, 제주시 용담동)
 큰넷각(강정천 하구, 서귀포시 강정동)
 개각(중문)
 고느리각(중문)

*곶(곶)

—새나곶(새(新)+나(川)+곶(곶), 제주시 일도동)

*내/나리

—납작이내(깊이가 얕은 내, 제주시 삼양동)
 섯내(제주시 도련동)
 웃무드내(上無頭川, 제주시 용강동)
 다끄내(닭은 개, 제주시 용담동)
 닥그나리(修近川, 닭은 내, 제주시 도평동)
 앞내(서귀포시 회수동)
 너븐내(서귀포시 예례동)
 거림내(서귀포시 하원동)
 머으내(서귀포시 하원동)

*내창/넋창(넋골짜기)

—구시물넋창(구유통 형상의 내, 제주시 노형동)
 원뒤내창(圓明寺 뒷내, 제주시 화북동)

*널

－선널(깎아지른 듯 곧게 선 벼랑, 서귀포시 강정동)

*논

－정지논(남군 대정읍 상모리)

구시논(구시=나무에 흠을 파서 물을 보내는 도구, 구시를 사용한 논=구시논,
서귀포시 강정동)

*눌(마을 이름)

－어우눌(어은동, 제주시 오라동)

모시눌(제주시 오라동)

*다리

－구석다리(구석진 곳, 제주시 삼양동)

메누리다리(머느리가 물을 건너다 빠져 죽은 다리, 남군 성산읍 오조리)

조순다리(절벽을 쏘아 만든 지름길, 남군 안덕면 대평리)

*단(壇)

－별젯단(별도로 제사 지내던 제단이 있던 자리, 남군 성산읍 오조리)

*潭

－녹남담(녹나무가 있는 潭, 제주시 노형동)

*담

－켓담(케는 일정한 지역, 담은 돌담, 서귀포시 강정동)

*堂

－옷수월당(옷+수월(鈺)+堂, 제주시 봉개동)

미륵당(堂이 있었던 지역, 제주시 회천동)

구남당(旧木堂, 제주시 아라동)

운지당(運籌堂, 제주시 일도동)

*덕(높직한 벼랑)

－괴기난덕(중문)

옷덕(오리 새끼들이 휴식처로 이용했던 곳, 남군 성산읍 성산리)

통덕(연안에 독립되어 있는 돌섬, 남군 성산읍 성산리)

생괭이덕(생괭이는 새끼 소라, 주변보다 조금 높은 지형, 서귀포시 강정동)

눌덕(날가리 모양의 덕, 서귀포시 강정동)

*데

－못데(못(池)이 있던 지역 일대, 제주시 노형동)

*도/또(입구, 길, 냇도=냇가)

－붉은도(흙 색깔이 붉은 지경, 제주시 삼양동)

너른도(넓은 출입구, 제주시 봉개동)

곰배몰도(곰방대처럼 생긴 못 출입구, 제주시 아라동)

궤도(굴의 출입구, 궤는 위가 바위이고 아래는 깊이 패인 곳, 제주시 월평동)

고지내또(高地川+도, 제주시 오라동)

돈내콧도(廻+川+코(앞으로 나온 부분+도(통로, 어귀), 제주시 해안동)

직사먹는물도(直舍점마소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하던 물이 있는 입구, 남군 남원읍 하례리)

*도대(등대)

－도대(제주시 건입동)

*도레(도량, 지경)

－가물도레(가물(可沙, 可水, 可物)개 남쪽 도량, 제주시 이호동)

*도로

－아홉도로(남군 대정읍 상모리)

*도리(둥글다.)

－흙바도리(웁푼 팬 길고 둥근 통, 제주시 도평동)

*돈지(屯地)

—돈지(군사 주둔지, 북군 애월읍 동하동)

툰돈지(다른 돈지, 돈지=海神堂이 있는 곳, 서귀포시 강정동)

*돌

—들은돌(擧石洞, 제주시 삼양동)

애기업은돌(제주시 화북동)

네나는돌(권 물이 햇별을 받아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돌, 제주시 영평동)

매안진돌(매가 자주 앉은 돌, 남군 대정 상모리)

너븐돌(넓은 돌, 남군 남원읍 신례리<공천포>)

살맞은돌(화살 박힌 돌, 북군 애월읍 고성리)

*동(洞)

—대동(남군 대정읍 상모리)

알봉동(남군 대정읍 상모리)

이교동(남군 대정읍 상모리)

사평동(沙坪洞=沙田洞+坪岱洞, 제주시 오라동)

무도동(무예를 연마하던 동산, 남군 남원읍 태흥리)

*동네

—섯동네(부락이름, 제주시 삼양동)

큰동네(제주시 봉개동)

알동네(제주시 용강동)

늦개동네(늦게 생긴 동네, 남군 성산읍 시흥리)

송동네(붉은 송이가 나는 동네, 남군 성산읍 시흥리)

더넛동네(더넛동네, 더늦동네, 더너=加來/加内の 옛 이름, 서귀포시 강정동)

*동산

—눌동산(남군 대정읍 상모리)

나부기동산(나부죽한 동산 앞길, 제주시 삼양동)

앞동산(제주시 삼양동)

장남이동산(長男에서 연유한 지명, 제주시 삼양동)

굴동산(굴곡이 진 길 이름, 제주시 삼양동)

마풀림동산(마을에서 장마가 제일 먼저 걷히는 동산, 남군 남원읍 위미리)

탕근동산(탕건 모양의 바위가 있던 곳, 남군 남원읍 신례리)

보채기동산(어부들이 작업후 휴식을 취하던 곳, 북군 애월읍 하귀리)

*덕

이개덕(李氏가 소유하고 있던 해안가, 남군 대정 가파리)

살래덕(찬장처럼 생긴 해안가 바위, 남군 대정 마라리), 기정=벼랑

*두덕(둔덕)

—작벽두덕(자갈한 자갈이 많은 둔덕, 제주시 오등동)

*두름

—윗두름(서귀포시 예례동)

*둥이(덩어리)

—붉은둥이(붉은 빛을 띤 덩어리<송이산>, 제주시 해안동)

*뒤

—망뒤(망오름 뒷쪽, 남군 표선면 토산리)

*드르(平野)/드레

—알드르(남군 대정읍 상모리)

삼양드르(삼의양 오름 북쪽 들판, 제주시 아라동)

사랏드르(沙羅+드르, 제주시 건입동)

정드르(射亭드르, 제주시 용담동)

큰드레(큰 들판, 제주시 오라동)

알드르(아래 쪽 평지, 남군 대정 상·하모리)

난드르(太平, 바닷가까지 널리 나간 들, 남군 안덕면 대평리)

한드르(넓은 들, 남군 표선면 표선리)

***드르/돌랭이**

- 뽕드르 (뽕이 많은 밭, 제주시 삼양동)
- 쇄죽은드르 (소가 죽은 작은 밭, 제주시 화북동)
- 소남드르 (소나무가 있는 작은 밭, 제주시 아라동)
- 몰죽은드르 (말이 죽은 작은 밭, 제주시 영평동)
- 곰돌랭이 (돌고래의 놀이터, 남군 성산읍 성산리)
- 쇄드르 (소처럼 생긴 등성이, 제주시 영평동)

***路**

- 칠성로 (七星路, 제주시 일도동)
- 북신작로 (북쪽에 새로 만든 길, 제주시 일도동)

***루**

- 로적루 (곡식을 쌓아 놓은 모양의 누 동산, 남군 성산읍 신양리)

***맛 (포구), 개 = 개맛**

- 개맛 (갯가에 있는 마을, 제주시 용담)

***막**

- 소금막 (소금을 제조했던 곳, 남군 성산읍 오조리)
- 짐수막 (金須 장군이 진을 쳤던 곳, 남군 성산읍 오조리)

***망 (望)**

- 예촌망 (나즈막한 오름, 남군 남원읍 하례)

***머리**

- 칠머리 (칠머릿당이 있던 곳, 제주시 건입동)
- 들렁머리 (용이 승천하려고 고개를 든 모양의 기암괴석, 남군 남원읍 태흥리)
- 먼머리 (먼 댕, 길 이름이면서 마을 이름, 제주시 삼양동)

***머울/머홀 (크고 작은 돌맹이가 쌓인 곳, 머흐다 = 험하다, 머홀왓 = 척박한 땅)**

- 귀머울 (가시덤불과 바위 등이 있음, 제주시 도련동)

홀근머울(큰 바위 덩어리들이 모인 곳, 서귀포시 색달동)

너른머홀(넓은 바닥에 바위가 깔려 있는 바다밭, 서귀포시 강정동)

*머들·머치·머채(磊, 돌무더기가 있고 잡초가 우거진 밭이나 들판)·모들·머생이
-머채(제주시 삼양동)

장머들(긴 머들, 제주시 화북동)

궤머채(맷돌처럼 생긴 돌무더기와 가시덤불이 많은 지역, 제주시 화북동)

자구남머치(자귀나무가 많은 머채, 제주시 회천동)

새새미머채(새+泉+머채, 제주시 아라동)

가마귀머들(제주시 건입동)

놀안머들(기러기가 나는 모양의 동산, 남군 남원 남원리)

상감머치(꼭대기에 있는 돌무더기 동산, 남군 남원읍 위미리)

오갱이모들(까마귀 머리 모양이고, 까마귀들이 집단으로 뭉쳐서 먹을 것을 찾는 곳, 남군 성산읍 성산리)

머생이(돌이 많은 밭, 서귀포시 강정동)

*매/미/뫼

-바리-매(鉢峰, 북군 애월 어음리)

궤살미(猫山峰, 북군 구좌 서김녕리)

작은물뫼(소수산봉, 남군 성산읍 신양리)

염통뫼(염통 같은 형상의 오름, 제주시 연동)

연디미(중문 대포동)

알미(알<앞,卵>+미(동산))

*모살

-너른모살(모래가 넓게 쌓인 곳, 남군 성산읍 성산리)

진모살(긴 모래밭, 남군 성산읍 오조리)

즈른모살(짧은 모래, 서귀포시 색달동)

*목(중요한 통로)

-물잡은목(남군 대정읍 상모리)

드신목(따스한 목, 제주시 화북동)

안목(속에 있는 목, 제주시 아라동)

알목(아래로 내려 가는 목, 제주시 용담동)

살책이목(우마를 방목할 때 출입구에 설치한 정낭이 있던 자리, 남군 대정읍 상모리)

태갯목(태우를 메어두는 곳, 남군 대정읍 일파리)

진밭목이(긴 밭의 입구, 남군 대정읍 신도리)

개목(개의 목처럼 가는 목, 남군 성산읍 성산리)

터진목(조수에 의하여 입구가 막히고 터지는 자연 수문이 있던 곳, 남군 성산읍 성산리)

*못

—개쌍못(쌍광나무가 있는 못, 제주시 도련동)

활망당못(활망당이 있는 못, 제주시 도련동)

갈못(渴—못, 제주시 도련동)

노루못(鹿泉, 제주시 건입동)

자왓못(자왓:수풀이 마구 형클어진 곳, 제주시 해안동)

소못(서귀포시 회수동)

골못(蘆池, 남군 대정읍 하모리)

조개못(조가 姓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살았음, 남군 대정 하모리)

수월이못(수월이라는 기생이 살았던 곳, 남군 대정 안성리)

맨초남못(상수리나무가 무성했던 곳, 남군 대정 신도리)

싱피못(지하 암반 때문에 물이 고인 못, 남군 남원 남원리)

빌레못(巖盤 위에 있는 못, 북군 애월읍 어음리)

*문(문이 있던 자리)

—행이문(虹霓門, 제주시 건입동)

중인문(제주시 일도동)

남문(제주시 삼도동)

*물

—새나물(새롭게 못을 파서 솟아나는 물, 제주시 도련동)

억수물(용출량이 많은 물, 제주시 도련동)

골각물(물이 조금씩 솟아나는 물, 제주시 아라동)
 두어물(서귀포시 중문동)
 신영물(神靈水, 남군 대정 하모리)
 개죽은물(남군 대정 인성리)
 도레물(두레박으로 떠올리는 물, 남군 대정 인성리)
 괴물(암반에 물이 있는 곳, 남군 대정 구억리)
 구시물(구유 형태의 하천, 남군 남원 남원리)
 개맛물(포구에서 솟아나는 물, 남군 남원읍 태흥리)
 영물(큰 바위 밑에서 솟아나는 물, 남군 남원읍 위미리)
 김서방물(金氏 가문이 이용하던 물, 남군 남원읍 신례리)
 생이물(바위 틈에서 솟는 작은 샘물이 있는 곳, 남군 성산읍 성산리)
 보셋물(물건 등을 씻는 물, 북군 애월읍 고내리)

*미(물)

—골개미(谷+浦+水, 제주시 삼양동)

*밋

—연디밋(煙臺下, 제주시 화북동)

*ㅁ르·ㅁ를·ㅁ루/물·모루·마루

—우중ㅁ루(남군 대정읍 하모리)

맹지ㅁ르(명주처럼 땅 기운이 좋은 등성이, 제주시 삼양동)

상장ㅁ르(上長모르, 제주시 삼양동)

고냉이ㅁ르(고양이처럼 생긴 등성이, 제주시 아라동)

움부리ㅁ르(가운데가 패이어 있음, 제주시 아라동)

ㅁ메ㅁ르(굽(경계)+ㅁ르, 제주시 아라동)

고로물(古老村, 제주시 이도동)

구남ㅁ루(거주하던 연안 김씨 아들이 9형제라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음,
남군 남원읍 위미리)

가마귀모루(烏旨里, 남군 남원읍 하례리의 古名)

오로큰마루(큰 오르막길이라는 뜻, 남군 성산읍 신양리)

늑고ㅁ를(鹿高ㅁ를, 사슴 모양의 지형, 비교적 높은 동산, 북군 애월읍 고내리)

노리ㅁ를(늑고ㅁ를에 비해 낮은 동산, 북군 애월읍 고내리)

*ㅎ실

—건지ㅎ실(건지, 건주는 여자의 머리 모양을 일컫는 듯, 제주시 도련동)

*바당

—지름바당(油海, 제주시 건입동)

*바르(바다)/바루

—앞바르(서귀포시 중문동)

넋바르(소라가 많은 해변, 남군 남원읍 신흥리)

선바루(만조시 바위를 밟아서 건너는 바다, 남군 성산읍 성산리)

섯바르(서쪽 바닷가, 서귀포시 색달동)

*바우(바위)

—서근바우(썩은 바위, 제주시 도두동)

*밧/왓/팻/발

—개장이왓(남군 대정읍 상모리)

사기왓(사기그릇+발, 제주시 삼양동)

새출왓(새로 조성된 꼴발, 제주시 삼양동)

진밧(긴 발, 제주시 삼양동)

고지왓(이랑 긴 밧, 고지=이랑, 제주시 삼양동)

구렁팻(제주시 삼양동)

술대왓(과녁을 세웠던 밧, 雜鬼를 물리치는 솟대, 술대/솟대를 混用한 것처럼 보임, 제주시 삼양동)

춤밧(참나무가 있던 밧, 제주시 삼양동)

툼밧(트멍(사이) 밧, 제주시 아라동)

동산밧(서귀포시 중문동)

섯굴왓(서귀포시 중문동)

큰우영팻(서귀포시 중문동)

흑밧(서귀포시 중문동)

개쟁이왓(개장국 한 그릇과 바꾼 밧이라는 뜻, 남군 대정 상모리)

놀래왓(한 농부가 밧을 갈다 구렁이가 땅 속에서 나와 놀란 밧, 남군 대정 상모리)

문서왓(밭을 매매할 때 최초로 문서로 작성했음, 남군 대정 상모리)
 극대왓(극대는 장승, 곧 장승이 있던 밭, 남군 대정 상·하모리)
 향아진밭(향아리같이 움푹 패인 바위, 남군 대정 신도리)
 별진밭(군대 주둔지, 남군 남원 남원리)
 둔터럭밭(수심이 얕은 바다, 남군 남원읍 신례리<공천포>)
 놀굽도로왓(놀(날가리)+굽(받침)+도로(盆地)+왓, 북군 애월읍 고내리)
 빈너코지소금밭(비너 모양의 코지에서 소금을 생산하던 곳, 서귀포시 강정동)
 고냉이머들얹은밭(고인돌처럼 큰 돌들이 있는 밭, 서귀포시 강정동)
 머흘팻(바닥에 돌들이 많은 바다, 서귀포시 강정동)
 동너븐밭(東廣田, 북군 애월읍 구엄리)
 서너븐밭(西廣田, 북군 애월읍 구엄리)
 진서리왓(긴+서리(흙과 모래가 모인 곳)+왓, 북군 애월읍 광령리)

*번지(평평한 곳)

－홀번지(머흘+번번한(평평한) 지형, 제주시 월평동)

*벵디/병디

－벵디(제주시 삼양동)

고동장벵디(高洞長+벵디, 제주시 도련동)

종전벵디(宗田, 제주시 도련동)

셋병디(풀과 관목들이 펼쳐진 벌판, 남군 남원읍 위미리)

*보

－장정의보(張容堅이 쌓은 둑, 남군 성산읍 오조리)

*보물

－안보물(內+보+물, 제주시 도련동)

*봉

－모슬봉(남군 대정읍 상·하모)

삼각봉(삼각추 모양의 바위 벼랑에서 유래, 제주시 아라동)

방일봉(訪日峰, 해맞이 동산, 제주시 노형동)

식산봉(食山峰, 봉우리를 날가리로 위장해서 왜구를 물리친 데서 유래, 남군 성산읍 오조리)

*봉우지(봉우리)

- 홍합봉우지(홍합 같은 것들이 많이 자라는 바닷속, 서귀포시 강정동)
- 막봉우지(가장 높은 봉우리, 서귀포시 강정동)

*부리

- 비애기부리(병아리 부리처럼 생긴 지형, 남군 성산읍 신양리)

*部落

- 신흥부락(새로 생긴 마을, 제주시 일도동)
- 명신부락('사십동'을 개칭한 이름, 제주시 용담동)

*빌레(넙적하고 평평한 돌)

- 논빌레(논밭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옴, 제주시 삼양동)
- 넙생이빌레(너럭바위가 있는 빌레, 제주시 삼양동)
- 취빌레(취처럼 생긴 너럭바위가 있음, 제주시 아라동)
- 돛(돌)손빌레(돼지가 화살 맞아 죽은 바위, 남군 대정 구역리)
- 납작빌레(납작한 암반지대, 남군 남원읍 위미리)
- 넙빌레(넓고 평평한 암반, 남군 남원읍 신례리)

*빗데기

- 주기남빗데기(심하게 비탈진 곳, 제주시 봉개동)

*사리(삼각주,사리다=차곡차곡 정리하다.)

- 무덤사리(무덤을 썼던 곳, 제주시 삼양동)
- 툰명사리(툰명(따로 튀어나옴)+사리(삼각주), 제주시 삼도동)

*산

- 금산(사람 출입을 금했던 산, 제주시 삼양동)

*산전

—강서북산전(강서북이라는 사람이 일군 火田, 제주시 봉개동)

*새미/샘

—공새미(貢泉味, 남군 남원읍 신례리)

개역새미(개역(미숫가루)+새미, 제주시 도련동)

절새미(小林寺라는 절에서 이용한 샘, 제주시 화북동)

드르새미(들판의 샘, 제주시 연동)

만지샘(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 서귀포시 중문동)

*서들(으스스한 동산 숲)/설덕/수덕

—도채비서들(도깨비가 나올 만큼 으스스한 수림지대, 제주시 도남동)

국인설덕(바위 돌들이 험하게 엮어 있는 가시덤불, 남군 대정 신평리)

꺾머들수덕(멧돌을 만들던 수림지대, 남군 대정 무릉리)

*서낭당(선낭당, 宣黃堂)

—동서낭당(東城皇堂, 제주시 노형동)

*城

—무근성(묵은 성, 제주시 삼도동)

*성굽(성이 있던 자리)

—곶은성굽(성이 구부러지는 지점, 제주시 건입동)

성굽(성터 자리가 남아 있는 지경, 제주시 일도동)

*소/수

—떼무소(떼(잔디)+물+소(沼), 제주시 아라동)

한수·소(한(大)+물+소(沼), 주시 아라동)

종냄이소(때죽나무가 근처에 있음, 제주시 아라동)

고냉이소(중문 하원)

올리소(야생 오리가 많았던 곳, 남군 남원읍 신례리)

웃수(고망물 위에 있는 연못, 남군 남원읍 위미리)

죽쟁이수(언덕에 있는 물을 식수로 썼음, 남군 남원읍 한남리)

고별감빠진소(고별감이 빠졌던 물통, 남군 성산읍 오조리)

웃작지소(웃+작지(자갈)+소(沼), 북군 애월읍 고성리)

진소(긴 소, 長沼, 서귀포시 색달동)

말소(馬沼, 말에게 물을 먹이던 곳, 서귀포시 색달동)

***수눌**

-모도리수눌(모도리는 큰 상어, 모도리가 잡히는 일이 있는 해안가, 남군 대정 하모리)

***수장(所場)**

-팔수장(八所場, 서귀포시 중문동)

***술(높은 곳)/숲/수울(숲,藪)**

-능술(陵+술, 제주시 월평동)

무적다리기숲(숲이 적적하고 무섭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함, 남군 남원읍 신흥리)

뒷술(뒷쪽에 있는 숲, 제주시 봉개동)

역적수울(역적들이 숨어 살았던 숲, 제주시 봉개동)

가막술(지형이 까마귀처럼 생겼음, 제주시 아라동)

귀남술(자귀나무가 우거진 숲, 남군 남원읍 수망리)

울미나미술(울면서 집을 철거한 데서 유래했다고 함, 남군 성산읍 고성리)

***수덕**

-돛박낭수덕(돛박나무가 우거진 수덕, 제주시 회천동)

수덕(제주시 노형동)

***송이/송이(언덕)**

-돌송·송이(돌이 많은 지경, 제주시 삼양동)

먼송이(먼 거리의 송이, 제주시 회천동)

높은송이(높은 언덕의 송이, 제주시 도두동)

***악**

-우부악(서귀포시 색달동)

궁대악(弓帶岳, 활궁자 모양의 띠가 있는 산, 남군 성산읍 수산리)

*안

- 진올래안(마을 이름, 긴 올래(진입로) 안, 제주시 오라동)
- 토성안(토성을 쌓았던 흔적이 남아 있는 안쪽, 남군 성산읍 성산리)

*알

- 성알(禾北城 아래, 제주시 화북동)
- 폭낭알(팽나무 아래, 제주시 도남동)
- 도구리알(도구리 비슷한 바위가 있는 포구, 남군 대정 신도리)
- 아이무덤알(아이 무덤이 많이 있던 아래, 남군 성산읍 성산리)
- 용당알(용이 승천할 때 치인 곳, 남군 성산읍 성산리)
- 통발알(비가 많이 오면 논밭과 같이 형성되는 곳, 남군 성산읍 성산리)
- 고개죽은알(고래가 죽은 바닷가 아래, 남군 성산읍 신양리)

*암

- 문수암(文水岩, 제주시 해안동)

*엉(바위굴)

- 돛굽는엉(돼지를 잡았던 굴, 제주시 용강)
- 큰엉(기암절벽과 자연 동굴이 있는 언덕, 남군 남원 남원리)

*여(물에 잠긴 바위)

- 목조른여(바위섬의 목이 물에 잠김, 남군 대정 영락리)
- 큰홍합여(홍합이 많이 나는 여, 남군 대정 신도리)
- 안여(案磯, 남군 남원 남원리)
- 조진여(밀집한 여, 남군 남원읍 신례리)
- 발벗는여(발을 뺀 것 같은 암반 모양, 남군 남원읍 신례리)
- 감태여(감태가 많이 나는 여, 남군 성산읍 신양리)
- 새여(새로 찾은 여, 서귀포시 강정동)
- 고장여(꽃처럼 생긴 여, 서귀포시 강정동)
- 찍여(평평한 곳에 오목하게 박힌 여, 서귀포시 강정동)

불미여 (과도 소리가 대장간 풀무 소리처럼 들리는 여, 북군 애월읍 신엄리)

*연디 (煙臺)

—어영연디 (어영은 마을 이름, 煙臺는 烽燧臺, 제주시 용담동)

*영아리

—물영아리 (정상 분화구에 물이 있는 산, 남군 남원읍 수망리)

여른영아리 (정상 분화구에 물이 없는 산, 남군 남원읍 수망리)

*오름

—망오름 (봉수대가 있던 오름, 제주시 삼양동)

원당오름 (元堂岳, 제주시 삼양동)

눈오름 (누운 오름, 제주시 삼양동)

지세오름 (기와를 구운 동네, 제주시 삼양동)

민오름 (나무가 없는 오름, 제주시 봉개동)

어승생오름 (御乘生岳, 제주시 해안동)

불래오름 (서귀포시 중문 하원)

베릿내오름 (別老岳, 서귀포시 중문동)

노리오름 (서귀포시 중문 하원)

알새오름 (서귀포시 중문 하원)

알오름 (아래쪽 오름, 또는 卵岳, 서귀포시 중문동)

늑하지오름 (鹿下旨岳, 사슴이 많이 살았음, 서귀포시 중문동)

절세오름 (살팽이와 닮은 산, 혹은 살팽이가 많이 살았던 산, 남군 남원읍 하례리)

*우영/우연

—물새우영 (물새가 찾아드는 울타리, 제주시 삼양동)

동우영 (동쪽에 있는 우영, 제주시 삼양동)

툰짓우영 (다른 집의 울타리 발, 제주시 화북동)

산물낭우영 (서귀포시 중문)

홍개우영 (홍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텃밭, 남군 대정 일과리)

팽대기우연 (팽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우영, 남군 표선면 표선리)

*우장

－산우장(산(墓) 울타리, 제주시 삼양동)

*院

－동주원(예전에 院이 있던 자리, 제주시 화북동)

中文院(지방 출장 관리들의 숙소, 서귀포시 중문동)

*原

－벌원(넓은 벌판, 활쏘기 훈련장으로 쓰임, 북군 애월읍 애월리)

*원(바닷가의 코지와 코지 사이에 멸치 등을 잡기 위해 쌓은 돌담)

－통시원(북군 애월읍 하귀리)

앞원(북군 애월읍 하귀리)

가린여원(북군 애월읍 하귀리)

죽든원(죽은 상어의 일종, 북군 애월읍 애월리)

※ 들물 때 원담을 쌓아 두면 썰물 때 빠져 나가지 못한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자리

－관선자리(관에 납품하는 물건을 배가 정박하던 자리, 남군 남원읍 태흥리)

가막자리(목장 관리하는 데 장막 쳤던 곳, 남군 성산읍 수산리)

*жат(城)

－하жат, 중жат, 상жат(제주시 연동)

*場

－고마장(雇馬場, 古馬場, 제주시 건입동)

막은장(길이 막히는 밭, 제주시 용담동)

산외장(墓 바깥에 있는 밭, 제주시 용담동)

*전

－영전(靈田, 제주시 삼양동)

관전(官田, 제주시 도련동)

송전(松田, 제주시 아라동)

향교전(鄕校田, 제주시 영평동)

사장전(선비들이 활을 쏘던 훈련장, 남군 성산읍 고성리)

*절(寺)

—달왓절(月井寺, 제주시 오라동)

*주암(窰)의 명사형,즈음,사이 틈)

—세밋주암(샘+ㅅ+주암(틈), 제주시 해안동)

*洲(흙, 모래 바위가 물 속에 있다가 썰물 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큰주, 작은주(서귀포시 중문동)

*井

—검정(檢井, 제주시 이도동)

*地境

—몰래물지경(밭 이름, 제주시 용담동)

*지슌(樹林이 우거진 곳)

*질(길)

—구린질(거린·갈린·나누어진 길, 제주시 삼양동)

멍지ㅁ르질(명주+ㅁ르+질, 제주시 삼양동)

절간질(절로 오르는 길, 제주시 삼양동)

진밭질(긴 밭 길, 마을이름, 제주시 삼양동)

거문질(남군 안덕면 사계리)

웃ㅁ실질(웃+ㅁ실+질, 제주시 삼양동)

몰질(말을 몰고 다니던 길, 남군 대정 동일리)

동한질(동쪽으로 뻗은 큰 길, 제주시 삼양동)

*창

—황개창(황개 서쪽 해안가 바닥, 남군 대정 가파리)

선창(船艙, 戰船을 碇泊시키는 곳, 북군 애월읍 애월리)

*泉

— 급고천(汲古泉, 제주시 일도동)

*칭(層, 움푹 팬 골짜기)

— 녹디굴 칭(綠頭+굴(谷,溝)+칭(層), 제주시 연동)

밤남굴칭(밤나무+굴+層, 제주시 연동)

*케(가시덤불과 돌무더기, 숲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곳, 잡목과 잡풀들이 우거진 넓은 들판)

— 서케(제주시 도련동)

동케(제주시 도련동)

성제동산케(형제동산케, 가시덤불, 돌무더기, 숲 등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지경, 제주시 영평동)

멜케(멸치를 많이 잡았다는 바닷가, 남군 대정 하모리)

몰무덤케(죽은 말들을 묻은 곳, 남군 대정 신도리)

*캐왓(火田)

— 질난캐왓(길이 난 밭, 제주시 오라동)

*코

— 돈내코(서귀포시 영천동)

돈내코(豚川通, 북군 애월읍 광령리)

*코지(뽕죽하게 나간 끝)

— 돌코지(돌이 뽕죽하게 튀어나온 밭 이름, 제주시 도련동)

보섬코지(보습처럼 생긴 코지, 제주시 화북동)

불락코지(불락이란 고기가 많이 잡힌 곳, 남군 대정 가파리)

코지(사람 코처럼 뽕죽히 나온 바닷가, 남군 성산읍 신천리)

흰모살코지(흰 모래가 있는 해안가 바위, 남군 남원읍 위미리)

상투코지(상투를 튼 모양의 돌이 있는 해안, 남군 성산읍 성산리)

*콧대기(지형이 콧대처럼 오뚝한 곳)

—새섬콧대기(억새 풀 밭, 지형이 콧대처럼 오뚝함, 제주시 건입동)

*塔

—미밋탑(답다니, 제주시 용담동)

*터

—묵은터(예전에 사람이 살았던 터, 제주시 삼양동)

화터(봉수대의 터, 제주시 삼양동)

제터(삼신단의 터, 제주시 삼양동)

불칸터(불에 탔던 터, 제주시 삼양동)

원집터(서귀포시 중문동)

독거미집터(독거미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집터, 남군 대정 안성리)

숫굴터(숫을 굶던 자리, 남군 대정 무릉리)

사장터(군사들이 활쏘기 하던 곳, 남군 남원읍 한남리)

석동이터(석동이라는 분이 처음 이주·정착 한 곳, 남군 남원읍 신흥리)

*턱(稜線이 흐르다가 턱진 곳)·툽

—소고개턱(소 명에의 턱 같은 지형, 남군 성산읍 신산리)

큰불턱(바람막이용 바위, 남군 성산읍 신산리)

코지불턱(해녀들이 작업하다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지피던 곳, 서귀포시 강정동)

지방툽(돌산, 제주시 건입동)

*털

—납개털(서귀포시 중문)

너벅털(서귀포시 중문)

염생이털(염소 목장이 있던 큰 밭, 제주시 오라동)

새미털(泉+털(산과 평야의 경계), 제주시 아라동)

*테기(턱+이)

—알녜테기(아래쪽 입구, 알+녜+턱+이, 제주시 이호동)

*통

- 안새통(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많이 괴는 물통, 제주시 회천동)
- 자구남통(자귀나무가 있고 물이 잘 고이는 지역, 제주시 회천동)
- 종남통(죽나무가 있고 물이 잘 고이는 지역, 제주시 용강동)
- 도구리통(돼지 먹이통 같은 물통, 제주시 용담동)
- 뒷못통(남군 남원읍 태흥리)
- 까마귀통(까마귀가 자주 앉았던 못, 남군 성산읍 오조리)

*통물

- 망고장통물(제주시 삼양동)

*통(물이 고이는 곳, 물 웅덩이)

- 흑통(臼+통, 제주시 화북동)
- 돈물통(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나는 곳, 제주시 아라동)
- 가메통(가메창,가메물통,가메물,가메물흙,제주시 노형)

*트멍/툼

- 돛트멍(돛(돼지)+트멍(툼), 돼지 같은 지형, 제주시 아라동)
- 어욱트멍(억새로 막힌 툼, 제주시 이호동)
- 머들툼(큰 머들 사이에 있는 논, 서귀포시 강정동)

*팡(臺가 되는 크고 넓적한 돌을 올려 놓은 곳)

- 넙은팡(넓은 섬 돌, 제주시 삼양동)
- 너븐팡(평평한 廢盤, 북군 애월읍 고내리)

*포

- 모슬포(남군 대정)
- 성산포(남군 성산)
- 전세포(網張浦의 옛 지명, 몽고 지배시 물자나 말 등을 원나라로 수송했던 포구, 남군 남원읍 하례리)
- 수마포(조랑말을 몽고로 수송하던 포구, 남군 성산읍 성산리)

***폭낭**

—작지폭낭(팽나무가 있는 부근, 제주시 건입동)

***흙**

—오로흙(두더지가 많은 지경, 제주시 화북동)

미내기흙(미나리가 많은 흙, 제주시 용강동)

은물흙(물이 잘 끼는 흙, 제주시 아라동)

베락흙(벼락이 떨어져 흙이 생김, 제주시 월평동)

제환지흙(바랭이가 많고 물이 잘 끼는 곳, 제주시 월평동)

돛박곳흙(돛백나무가 많은 흙, 제주시 도두동)

오로흙이(오로+흙+이, 제주시 이호),

양안리흙(두 언덕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 곳, 남군 안덕면 창천리)

***홀**

—먼홀(오래 전에 마을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 남군 표선면 표선리)

***기타**

—나부기(남북으로 길게 나부죽한 오름, 제주시 삼양동)

산우장(墓+우장(울타리), 제주시 삼양동)

엉덕(언덕, 제주시 삼양동)

벌랑(伐浪, 제주시 화북동)

돈지(屯地, 제주시 화북동)

답다니(답을 쌓은 곳, 제주시 봉개),

답단이(답을 쌓아 사특한 것을 막았던 자리, 남군 대정 보성리)=거옥대, 방사
 답

막시리(몰+실+이, 말을 실어 내는 곳, 남군 대정 가파리)

골내미(제주시 노형, 谷+越, 出+이)

가매앞(가마를 굽던 앞 자리, 남군 대정 무릉리)

오로코미(오소리가 많이 서식했던 곳, 남군 대정 신도리)

쇠떨어지는구멍(방목 소가 떨어지는 바위 사이의 구멍, 남군 남원 남원리)

범아구리(호랑이가 누워서 입을 벌린 형태의 바위, 남군 남원 남원리)

서잡댕이(섯개 옆댕이의 준말, 남군 남원읍 위미리)

어캐할망(성황당, 남군 남원읍 하례리)

무라(수망리)

독남송이(소나무, 녹나무가 있는 지역, 남군 남원읍 신흥리)

돌송이(도순리)

고무새끼(멸치 등이 많이 모이고 그것을 먹기 위해 돌고래(곰빼기)가 모여드는
곳, 남군 성산읍 성산리)

섬발이(사람이 찾아가려면 기어가야 하는 바위, 남군 성산읍 성산리)

애기자국(옥) (반석에 애기 발자국 같은 것이 있는 데서 유래, 남군 성산읍 오
조리)

가돈이(물을 가두고 있는 지형, 남군 성산읍 고성리)

건네기(썰물이 돼야 건널 수 있는 바닷가, 남군 성산읍 신양리)

조족발이(鳥足水, 물이 얇아 새발도 적시지 못할 정도라는 데서 유래, 남군 성
산읍 온평리)

꽃바구니(형태가 꽃바구니와 비슷한 물통, 남군 안덕면 덕수리)

꿈장이(잘 보이지 않는 논, 서귀포시 강정동)

마풀림(馬草林, 마소를 풀어 놓아 풀을 먹였던 장소, 서귀포시 강정동)

통물작지(통물 가까운 갯가에 작은 자갈이 쌓인 곳, 서귀포시 강정동)

흙치(흙이 진 듯 깊은 바닥으로 된 바다 밭, 서귀포시 강정동)

너리(평평한 바닥돌이 있는 바디밭, 서귀포시 강정동)

지미(기미, 바다 속에 자그마한 돌들이 보임, 서귀포시 강정동)

밭고랑논고랑(바닥 모양이 밭고랑, 논고랑처럼 생긴 바다, 서귀포시 강정동)

도둑넌묻은테역(도둑질 한 여자를 묻은 잔디밭, 북군 애월읍 구엄리)